




# 2025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발간사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복지관은 관악구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복지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2025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복지 수요 또한 복잡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동체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지역주민 욕구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악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립 위험군 중심의 세대별 통합 돌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장년, 노년, 취약 청년 등 세대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보건소, 의료기관, 동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는 ‘사례관리 총괄 조정자’로서 분절 없는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주도의 ‘지역밀착형 커뮤니티’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조 역량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소모임을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특히 접근성이 낮은 행운동과 남현동 지역에는 생활권 중심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셋째, ‘학습과 건강’을 잇는 포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욕구가 확인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민의 자립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협력적 문제 해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주민지원단(이웃살피미)이 지역의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관 자원개발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연대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 관계자 여러분.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와 제언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 이웃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이 목소리를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한 사람의 고립된 삶이 마을의 온기로 다시 살아나는 ‘따뜻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백옥선

# 목 차

## I 서론

1. 사업개요 .....	3
가. 조사 목적 .....	3
나. 조사 설계 및 방법 .....	3
다. 조사의 한계 .....	3

## II 지역사회 현황 분석

1. 지역사회 일반 현황 .....	7
가. 지리 및 행정 특성 .....	7
나. 인구학적 특성 .....	8
2. 지역사회 복지 현황 .....	10
가. 복지대상자 현황 .....	10
나. 복지기관 현황 .....	11

## III 지역사회 조사 및 분석 결과

1. 양적조사 .....	15
가. 응답자 일반 현황 .....	15
나. 복지관 인지정도 .....	17
다. 복지욕구_건강 및 의료 .....	22
라. 복지욕구_경제,주거, 일자리 .....	28
마. 복지욕구_사회관계 및 여가 / 문화 .....	32
바. 복지욕구_돌봄 및 교육 .....	40
사. 복지욕구_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	46
아. 복지관에 바라는 점 .....	52
2. 질적조사 .....	53
가. 복지관 서비스 이용 그룹 .....	53
나. 지역주민 (중장년 1인가구) 그룹 .....	56
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룹 .....	59
라. 후원자 / 자원봉사 그룹 .....	62

3. 결론 및 제언 .....	65
가. 결과 요약 .....	65
나. 복지관 사업 및 운영방안 제언 .....	68

## IV 아동청소년 조사 및 분석결과

1. 양적조사 .....	75
가. 응답자 일반현황 .....	75
나. 복지관 이용경험 및 인식 .....	77
다. 여가·놀이 .....	80
라. 식생활 .....	83
마. 학업 .....	86
바. 심리·정서 .....	88
사. 가족 및 친구관계 .....	91
아. 프로그램 욕구 .....	94
자. 디지털 사용 .....	97
차. 심화 분석 .....	99
2. 결론 및 제언 .....	106
가. 결과 요약 .....	106
나. 아동·청소년 사업 및 운영방안 제언 .....	107

## V 첨부자료

1.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	111
2. 아동·청소년 욕구조사 설문지 .....	121

### 운영법인

서울YWCA



### 설립목적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노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 비전

공동체 회복을 꿈꾸며 소통과 연대로 동행하는 행복한 나눔마을

### 운영방향

#### 생태체계 기반

개인과 이웃과 마을의 관계를 살립니다.

#### 강점관점 기반

개인과 이웃과 마을의 강점을 살립니다.

## 연혁

- 1967.03. 서울YWCA봉천사회봉사관 봉헌
- 1992.04.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준공
- 1993.02.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1998.07. 관악여성쉼터 개원, 가정폭력여성을 위한 상담 시작
- 2003.03. 여성노인의 사회심리적, 경제적 소득창출을 위한 자활사업단 운영
- 2004.01. 건강한 조부모 손자녀 가족 공동체 사회적 행동모델 체험 및 세대통합프로그램
- 2005.02. 관악구 여성쉼터 우수기관 선정
- 2005.08.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거점기관 선정
- 2006.0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심리정서적 치유프로그램
- 2007.01. 서울시 관악구 여성발전기금 사업 선정
- 2009.01. 아동발달지원센터 놀이치료실 개설
- 2009.10. 관악구 무지개 네트워크 선정
- 2010.01. 봉천지역 아동복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기반형 아동복지지원체계구축사업
- 2011.03. 관악구 다문화 라디오 방송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방송시작
- 2012.09. 우리마을희망 네트워크 심(心) 봉사단 발대식
- 2013.01.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 ‘어울림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 2014.09. 지역마을문화축제 ‘함께 그려요! 꿈이 있는 우리마을’ 개최
- 2015.02.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관악구 대표기관 선정
- 2015.06. 아름다운 도서관 개관 (아이들과 미래, 신한카드 지원)
- 2016.04. 서울시 지원공간개방 지원사업 ‘트인(in)통(소통)통(공간)’ 시작
- 2018.10.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꿈디자이너사업 선정
- 2019.03. 누리봄 공동작업장 ‘봄봄’ 개소
- 2020.05.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승인
- 2021.07. 서울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시범사업 선정
- 2022.05.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사업 안전망지원사업’ 추진
- 2022.07. 관악구청 마을-청년함께살이 플랫폼 구축사업 선정
- 2023.10. 제 10회 지역공감 어울림 축제 개최 (17개 단체 연합)
- 2023.04. 1인 가구 소통공간 ‘쌩글병글 사랑방’ 조성사업 선정
- 2024.03. 관악형 1인 가구 지원사업 ‘쓰리고’ 선정
- 2024.05. 서울특별시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주특기’ 선정
- 2025.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거중장년 돌봄안전망 형성사업 ‘행님아 함께가자’ 선정
- 2025.04. 서울시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사업 ‘꽃망울’ 선정



1. 사업개요
  - 가. 조사 목적
  - 나. 조사 설계 및 방법
  - 다. 조사의 한계



## I. 서론

### 1. 사업 개요

#### 가. 조사 목적

본 지역사회 욕구조사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기획·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번 욕구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복지관의 향후 5개년 중장기 사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관악구청 및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실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조사 설계 및 방법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양적 조사 (설문조사): 지역주민 및 아동·청소년 6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응답이 유의미한 573명을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질적 조사 (FGI): 복지관 이용자, 중장년 1인 가구, 아동·청소년 보호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4개 그룹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주요 욕구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 통계자료 조사: 관악구 및 중심 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취약계층 현황, 복지 자원 분포 등 객관적인 지역사회 통계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설문 결과의 해석력을 높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질문에 따른 응답 내용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정리하였다.

#### 다.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하여 운영 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조사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및 일반화의 한계이다. 본 조사는 시간적,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확률 표본추출 방식 대신 편의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조사 참여자가 관악구 전체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지역 전체에 일반화하여 해석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질적 데이터 해석의 한계이다. 총 4개 그룹(2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집단면담 결과는 해당 그룹이 경험하는 복지 욕구의 깊이 있는 맥락과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였으나, 이는 소수의 특정 집단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체 이용자나 지역주민의 보편적 의견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 지역사회 일반현황
  - 가. 지리 및 행정특성
  - 나. 인구학적 특성
  
2. 지역사회 복지현황
  - 가. 복지대상자 현황
  - 나. 복지기관 현황



## II. 지역사회 현황 분석

### 1. 지역사회 일반 현황

#### 가. 지리 및 행정 특성

[그림 1] 관악구 행정동



(출처: 관악구 홈페이지 \_ 일반정보)

[표 1] 관악구 토지이용 현황

전체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29.56km <sup>2</sup> (서울시 전체의 4.9%)	14.63km <sup>2</sup> (49.50%)	13.85km <sup>2</sup> (46.85%)	0.69km <sup>2</sup> (2.33%)	0.39km <sup>2</sup> (1.32%)

(출처: 관악구 홈페이지 \_ 일반정보)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하며, 관악산을 남쪽 경계로 두고 있다. 총 면적은 29.56km<sup>2</sup>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4.9%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7번째로 넓은 구이다. 행정동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대학동으로 7.29km<sup>2</sup>이고, 면적이 가장 작은 동은 청림동으로 0.32km<sup>2</sup>이다. 토지 이용은 주거지와 녹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 14.63km<sup>2</sup>(49.50%)로 가장 넓은 비중을 차지하고, 녹지지역 역시 13.85km<sup>2</sup>(46.85%)로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북쪽으로는 동작구, 동쪽으로는 서초구, 서쪽으로는 금천구와 구로구, 남쪽으로는 경기도 과천시 및 안양시와 인접하며, 남부순환로가 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강남순환로 등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는 법정동 기준으로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의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 21개의 행정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 나. 인구학적 특성

[표 2] 관악구 전체 인구현황

구분 (행정동)	세대	세대당인구 (명)	전체 인구(명)			한국인(명)	외국인(명)	65세이상(명)
			전체	남	여			
서울시	4,505,357	2.07	9,594,329	4,610,784	4,983,545	9,318,500	275,829	1,894,245
관악구	288,964	1.66	497,998	248,620	249,378	478,809	19,189	92,116
보라매동	12,996	1.78	23,678	11,538	12,140	23,120	558	5,236
은천동	16,060	1.96	32,113	15,638	16,475	31,535	578	6,713
성현동	12,926	2.30	29,911	14,418	15,493	29,705	206	6,300
중앙동	10,517	1.45	15,660	7,397	8,263	15,217	443	2,642
청림동	6,345	2.26	14,475	6,887	7,588	14,331	144	3,134
행운동	18,326	1.56	29,262	14,043	15,219	28,567	695	4,903
청룡동	24,625	1.46	37,068	17,683	19,385	35,880	1,188	5,309
낙성대동	12,426	1.41	18,232	9,183	9,049	17,541	691	2,211
인현동	14,972	1.67	25,465	12,276	13,189	24,992	473	4,594
남현동	9,796	1.77	17,507	8,453	9,054	17,301	206	3,332
신림동	19,387	1.19	24,410	12,977	11,433	23,109	1,301	2,183
신사동	14,679	1.50	24,298	12,012	12,286	22,023	2,275	4,161
조원동	12,509	1.57	21,271	10,517	10,754	19,679	1,592	3,604
미성동	14,026	2.03	29,145	14,189	14,956	28,494	651	6,926
난곡동	12,718	1.91	24,760	12,280	12,480	24,309	451	6,277
난향동	6,126	2.36	14,566	7,100	7,466	14,438	128	3,223
서원동	15,467	1.48	23,908	12,389	11,519	22,905	1,003	3,777
신원동	11,356	1.52	18,235	9,249	8,986	17,292	943	3,658
서림동	15,635	1.50	25,014	13,647	11,367	23,464	1,550	4,146
삼성동	9,842	2.04	20,249	10,040	10,209	20,087	162	6,220
대학동	18,230	1.36	28,771	16,704	12,067	24,820	3,951	3,567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2025 3/4분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2025년 3/4분기 기준, 관악구 총인구는 497,998명이며, 총 세대수는 288,964세대이다. 주목할 점은 관악구의 세대당 인구수가 1.66명으로 서울시 평균 (2.07)대비 낮은 점이다. 이는 관악구의 가구 구성이 소규모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또한 관악구 등록 외국인인 19,189명으로, 다문화적 요소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92,116명으로 중요한 복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관악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18.50%로 유엔(UN) 기준 고령 사회(Aged Society, 14% 이상)에 해당하며,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 진입을 불과 몇 년 앞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인 돌봄 및 건강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예고하며, 복지관의 중장기 사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표 3] 관악구 1인 가구 현황

연도별	2016년	2023년	2024년	2025.6월
관악구 세대수 (세대)	251,955	284,579	285,963	288,722
관악구 1인 가구 수 (세대)	128,682	175,390	178,437	180,633
관악구 1인 가구 비율(%)	51.1%	61.6%	62.4%	62.6%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25.6)

[표 4] 관악구 동별 1인 가구

(단위: 명)

구분	전체가구	1인가구	비율	아동청소년 (18세이하)	청년 (19세~39세)	중장년 (40세~64세)	어르신 (65세이상)	
총계(가구)	288,722	180,633	100.0	426 (0.2%)	114,891 (63.6%)	40,571 (22.5%)	24,745 (13.7%)	
성별	남성	-	95,727	53.0	174	61,341	25,366	8,846
	여성	-	84,906	47.0	252	53,550	15,205	15,899
행정동	보라매동	12,999	7,243	55.7	11	4,111	1,762	1,359
	은천동	16,060	7,756	48.3	9	4,056	1,970	1,721
	성현동	12,895	4,458	34.6	1	1,479	1,386	1,592
	중앙동	10,502	7,647	72.8	24	5,569	1,237	817
	청림동	6,362	2,095	32.9	1	627	718	749
	행운동	18,352	12,374	67.4	37	8,830	2,185	1,322
	청룡동	24,738	18,209	73.6	36	7,301	1,326	610
	낙성대동	12,336	9,273	75.2	36	7,301	1,326	610
	인현동	14,968	9,235	61.7	25	6,244	1,856	1,110
	남현동	9,829	5,662	57.6	16	3,760	1,174	712
	신림동	19,321	16,532	85.6	34	12,816	2,908	774
	신사동	14,708	10,269	69.8	27	6,881	2,178	1,183
	조원동	12,450	8,099	65.1	20	5,213	1,875	991
	미성동	14,034	6,234	44.4	6	2,688	1,933	1,607
	난곡동	12,757	6,145	48.2	7	2,050	2,214	1,874
	난향동	6,132	1,960	32.0	1	322	929	708
	서원동	15,527	10,873	70.0	29	7,741	2,125	978
	신원동	11,415	7,673	67.2	12	4,705	1,813	1,143
서림동	15,502	10,783	69.6	32	6,875	2,781	1,095	
삼성동	9,679	4,057	41.9	2	692	1,606	1,757	
대학동	18,156	14,056	77.4	39	8,924	4,004	1,089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25.6)

관악구의 가구 변화의 주요한 특징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관악구의 1인 가구는 180,633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288,722세대) 중 62.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악구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인가구 180,633가구 중 19세~39세 청년층이 114,891가구(6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독립한 인구로,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전, 그리고 문화 및 관계망 형성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한편, 65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24,745가구(13.7%)로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돌봄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된다. 노년 1인 가구 집중지역은 난곡동(1,874가구), 삼성동(1,757가구), 은천동(1,721가구) 등으로 이는 고독사 예방, 정서적 돌봄, 건강 관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관악구 행정동별 1인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최고 집중지역은 신림동(85.6%), 낙성대동(75.2%), 청룡동(73.6%), 서원동(70.0%)으로 1인 가구 비율이 70%를 넘어선다. 청년 (19~39세) 1인 가구는 신림동(12,816가구), 대학동(8,924가구), 행운동(8,830가구), 낙성대동(7,301가구), 청룡동(7,301가구)에 집중되어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전 서비스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2. 지역사회 복지 현황

### 가. 복지대상자 현황

[표 5] 관악구 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인 구			국민 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노인 인구	독거 노인
									모자 가정	부자 가정			
합 계	479,285 (명)			25,803	17,656	14,574	25,399	1,562	2,114	492	19,961	90,177	24,886
	세대	남	여										
	288,846	241,138	238,147										
보라매동	13,011	11,321	11,835	1,282	883	773	1,247	112	140	33	1,079	5,133	1,361
은천동	16,064	15,435	16,150	1,830	1,304	1,127	1,784	134	178	38	1,635	6,588	1,740
성현동	12,910	14,302	15,367	1,765	1,289	1,062	1,752	75	105	20	1,435	6,221	1,603
중앙동	10,463	7,218	7,969	683	458	372	670	40	60	5	556	2,583	818
청림동	6,347	6,849	7,518	647	433	373	643	42	48	18	615	3,096	750
행운동	18,328	13,850	14,807	1,172	796	656	1,162	47	77	20	1,000	4,862	1,328
청룡동	24,732	17,308	18,695	1,265	828	700	1,251	62	72	14	1,121	5,181	1,555
낙성대동	12,369	8,849	8,661	508	363	280	504	23	31	11	428	2,173	610
인현동	14,983	12,113	12,928	792	514	414	774	43	76	23	892	4,531	1,120
남현동	9,832	8,389	8,940	393	234	187	386	20	38	0	576	3,256	718
신림동	19,355	12,518	10,574	1,017	747	601	999	18	40	12	532	2,115	775
신사동	14,654	10,981	11,041	1,313	906	713	1,299	89	117	35	931	3,877	1,182
조원동	12,469	9,757	9,912	889	623	504	867	63	82	14	747	3,403	1,001
미성동	14,038	13,966	14,631	1,645	1,096	876	1,613	168	276	59	1,435	6,815	1,624
난곡동	12,737	12,148	12,253	2,478	1,775	1,487	2,425	218	266	62	1,583	6,167	1,884
난향동	6,125	7,059	7,418	742	484	398	736	57	68	17	695	3,159	716
서원동	15,544	12,098	10,938	1,119	740	647	1,102	64	103	20	822	3,718	992
신원동	11,380	8,926	8,453	1,221	868	739	1,203	55	59	23	864	3,565	1,145
서림동	15,526	12,947	10,424	1,452	949	766	1,429	86	127	21	894	4,069	1,106
삼성동	9,779	9,881	10,068	1,782	1,274	1,040	1,767	82	79	34	1,336	6,164	1,769
대학동	18,200	15,223	9,565	1,808	1,092	859	1,786	64	72	13	785	3,501	1,089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25.7.31.)

관악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난곡동 2,478명, 은천동 1,830명, 대학동 1,808명순이며, 등록장애인은 은천동 1,635명, 난곡동 1,583명, 미성동과 성현동 1,435명순이다. 노인인구는 미성동 6,815명, 은천동 6,588명, 성현동 6,221명순이며, 독거노인은 난곡동 1,884명, 삼성동 1,769명, 은천동 1,740명순이다. 욕구조사 대상지역(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남현동)의 노인인구대비 독거노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행운동 27.3%, 청림동 24.2%, 성현동 25.76%, 남현동 22.05%로 나타났다.

나. 복지기관 현황

[표 6] 관악구 복지자원 현황

구분	시설	개소
가족(다문화)복지시설 (2)	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노인복지시설 (157)	노인교실	6
	노인복지관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
	노인요양시설	1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
	복합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115
아동복지시설 (47)	다함께돌봄센터	6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1
	아동전용시설	5
	자립지원시설	1
기타복지시설 (8)	지역아동센터	32
	영유아보육시설	8
여성복지시설 (5)	가정폭력상담소	1
	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1
	성폭력피해상담소	1
	성폭력피해상담원교육훈련시설	1
	통합상담소	1
일반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관	5
장기요양시설 (83)	장기요양기관	83
장애인복지시설 (25)	수어(수화)통역센터	1
	장애유형별거주시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1
	장애인 보호작업장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
	장애인복지관	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
	장애인체육시설	1
	접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	
저소득복지시설 (1)	지역자활센터	1
정신보건복지시설 (1)	정신건강복지 지역센터	1
청소년복지시설 (3)	청소년쉼터	2
	청소년자립지원관	1

(출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시 관악구 사회복지시설 목록)



1. 양적조사
2. 질적조사
3. 결론 및 제언



### III. 지역욕구 조사 및 결과 분석

#### 1. 양적조사 \_ 설문지 응답결과 분석

##### 가. 응답자 일반 현황

[표 7-1] 응답자 성별 및 연령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합계
성별	남성	115	27.3	421 (100%)
	여성	306	72.7	
연령	10대	2	0.5	421 (100%)
	20대	23	5.5	
	30대	23	5.5	
	40대	73	17.3	
	50대	50	11.9	
	60대	89	21.1	
	70대	94	22.3	
	80대	58	13.8	
	90대	9	2.1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306명(72.7%), 남성 115명(27.3%)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분포는 20대 이하 25명(6.0%), 30대 23명(5.5%), 40대 73명(17.3%), 50대 50명(11.9%), 60대 89명(21.1%), 70대 94명(22.3%), 80대 이상 67명(15.9%)로 나타났다.

[표 7-2] 응답자 거주 및 주거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합계
거주지역	행운동	134	31.8	417 (100%)
	청림동	109	25.9	
	성현동	74	17.6	
	남현동	50	11.9	
	그 외 지역	50	11.9	
관악구 거주기간	1년 미만	16	3.8	421 (100%)
	1년~3년 이하	23	5.5	
	4년~6년 이하	37	8.8	
	7년~9년 이하	39	9.3	
	10년~14년 이사	50	11.9	
	15년 이상	256	60.8	
주거형태	아파트	231	54.9	418 (100%)
	다세대(빌라)주택	135	32.1	
	단독주택	39	9.3	
	고시원, 여인숙, 기타	13	3.1	
주거현황	자가	208	49.4	421 (100%)
	전세(장기전세 포함)	72	17.1	
	월세	59	14.0	
	공공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40	9.5	
	영구임대	25	5.9	
	기타(고시원, 친척집, 노숙 등)	17	4.0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행운동 134명(31.8%), 청림동 109명(25.9%), 성현동 74명(17.6%) 남현동 50명(11.9%)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거주기간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256명(6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0년-14년 이하가 50명(11.9%)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231명(54.9%)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세대(빌라)/주택 135명(32.1%), 단독주택 39명(9.3%) 순이었다. 주거 현황은 자가 응답이 206명(49.4%)으로 가장 많아 자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세(장기 전세 포함) 72명(17.1%), 월세 59명(14.0%)이 뒤를 이었다.

[표 7-3] 응답자 가족구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합계
가족구성	1인가구	140	33.3	421 (100%)
	부부(자녀없음)	69	16.4	
	부부+자녀	145	34.4	
	한부모+자녀	41	9.7	
	(한)조부모+부모+자녀	15	3.6	
	조부(모)+손자녀	7	1.7	
	기타	4	1.0	
동거가족수 (본인 포함)	1명	140	33.3	421 (100%)
	2명	106	25.2	
	3명	77	18.3	
	4명	66	15.7	
	5명	25	5.9	
	6명	6	1.4	
	7명	1	0.2	

가족구성은 부부+자녀 가구가 145명(34.4%)으로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 비율도 140명(33.3%)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 수(본인 포함)는 1명 가구가 140명(33.3%) 2명 가구 106명(25.2%), 3명 가구 77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4] 응답자 보호구분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합계
보호구분	기초생활수급	104	24.7	421 (100%)
	차상위계층	19	4.5	
	해당없음	298	70.8	

응답자의 보호구분은 기초생활수급은 104명(24.7%), 차상위계층은 19명(4.5%)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없음' 이 298명(70.8%)로 나타났다.

나. 복지관 인지 정도

[표 8-1] 복지관 인지도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 복지관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알고 있다.	113	26.8
	위치나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92	21.9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172	40.9
	전혀 모른다.	44	10.5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주민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 40.9%가 ‘프로그램을 이용 중’ 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관을 전혀 모르는 주민은 10.5%였으며, 이름만 알거나 정보만 아는 주민의 비율도 48.7%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이 향후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표 8-2] 복지관 인지도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름만 알고 있다.	40	29.9	28	25.7	10	13.5	21	42.0
위치나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24	17.9	34	31.2	15	20.3	4	8.0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55	41.0	45	41.3	46	62.2	9	18.0
전혀 모른다.	15	11.2	2	1.8	3	4.1	16	32.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복지관 인지도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성현동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행운동(41.0%)과 청림동(41.3%)은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남현동은 1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현동은 복지관을 ‘전혀 모른다’ 라는 응답(32.0%)과 ‘이름만 알고 있다’ 라는 응답(42.0%)이 다른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현동이 복지관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제고 및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9-1] 복지관 인지 경로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 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안내	45	10.7
	이웃/친구/가족 추천	155	36.8
	복지관 홈페이지/소식지/홍보물	37	8.8
	지역 신문/방송/온라인 (SNS, 블로그 등)	12	2.9
	지역 행사(축제)/캠페인 참여 중	34	8.1
	우연히 지나가다가	95	22.6
	잘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	43	10.2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인지 경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8%가 ‘이웃/친구/가족 추천’을 통해 복지관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2.6%로 나타났다.

[표 9-2] 복지관 인지도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민센터 안내	15	11.2	10	9.2	8	10.8	10	20.0
이웃/친구/가족 추천	49	36.6	39	35.8	35	47.3	8	16.0
복지관 홈페이지/소식지/홍보물	16	11.9	13	11.9	3	4.1	4	8.0
지역 신문/방송/온라인 (SNS, 블로그 등)	3	2.2	4	3.7	0	0.0	3	6.0
지역 행사(축제)/캠페인 참여 중	5	3.7	15	13.8	7	9.5	2	4.0
우연히 지나가다가	33	24.6	26	23.9	18	24.3	6	12.0
잘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	13	9.7	2	1.8	3	4.1	17	34.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복지관 인지 경로 분석 결과, 복지관을 알게 된 주된 경로는 ‘이웃/친구/가족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현동에서 4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된 경우가 행운동(24.6%), 청림동(23.9%), 성현동(24.3%)에서 약 20% 중반대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남현동은 ‘잘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의 지리적 거리 및 낮은 접근성이 인지 경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1] 복지관 이용여부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다.	212	50.4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37	8.8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다.	172	40.9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4%**가 **복지관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9%는 복지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비이용자들을 위한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10-2] 복지관 이용여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 이용하고 있다.	64	47.8	61	56.0	53	71.6	11	22.0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12	9.0	13	11.9	7	9.5	1	2.0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다.	58	43.3	35	32.1	14	18.9	38	76.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복지관 이용 여부 분석 결과, 복지관 ‘현재 이용’ 비율은 성현동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림동(56.0%), 행운동(4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현동은 22.0%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11-1] 복지관 이용이유

n=21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이용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	131	62.1
	복지관이 집/직장과 가까워서	20	9.5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여서	7	3.3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12	5.7
	건강 관리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29	13.7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해서	4	1.9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곳이 필요해서	8	3.8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이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관리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라는 응답이 13.7%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11-2] 복지관 인지도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	40	62.5	32	53.3	34	64.1	7	63.6
복지관이 집/직장과 가까워서	10	15.6	7	11.7	3	5.7	0	0.0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여서	1	1.6	2	3.3	2	3.8	0	0.0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3	4.7	4	6.7	4	7.5	1	9.1
건강 관리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6	9.4	13	21.7	9	17.0	0	0.0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해서	2	3.1	0	0.0	0	0.0	1	9.1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곳이 필요해서	2	3.1	2	3.3	1	1.9	2	18.2
합계 (중복응답)	64	100	60	100	53	100	11	100

동별 복지관 이용 이유 조사 결과, 모든 동에서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동은 6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남현동(63.6%), 행운동(62.5%)로 뒤를 이었다. 이는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1] 복지관 미이용 이유

		n=173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이용을 중단했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79	45.7
	필요한 서비스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0	11.6
	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워서 (교통, 거리 등)	11	6.4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1	0.6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운영시간, 프로그램 시간 등)	23	13.3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4	2.3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29	16.8
	기타	6	3.5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미이용 이유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45.7%가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16.8%)와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13.3%)가 뒤를 이었다. 이는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전달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잠재적 주민층(16.8%)을 대상으로 복지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12-2] 복지관 미이용 이유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23	39.7	8	24.2	7	41.2	24	63.2
필요한 서비스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2	20.7	2	6.1	2	11.8	3	7.9
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워서 (교통, 거리 등)	2	3.4	1	3.0	1	5.9	4	10.5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1	1.7	0	0.0	0	0.0	0	0.0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운영시간, 프로그램 시간 등)	6	10.4	9	27.3	4	23.5	3	7.9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1	1.7	0	0.0	0	0.0	1	2.6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10	17.2	10	30.3	3	17.6	3	7.9
기타	3	5.2	3	9.1	0	0.0	0	0.0
합계 (중복응답)	58	100	33	0	17	100	38	100

동별 복지관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 분석 결과, 행운동, 성현동, 남현동에서는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남현동은 이 응답이 63.2%로 가장 높아,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가장 취약함을 나타냈다. 청림동은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라는 응답률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운영시간, 프로그램 시간 등)’ 였으며 동별로는 청림동(27.3%), 성현동

(23.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운동은 ‘필요한 서비스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20.7%)라는 응답이 다른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 확보 및 동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현동은 ‘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워서 (교통, 거리 등)’ 라는 응답이 10.5%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의 물리적 거리가 이용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1]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

		n=730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 복지관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 식사, 재가 서비스 등)	135	18.5
	여가/문화/교육 지원 (삶의 만족도 높이는 활동)	187	25.6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	65	8.9
	지역 문제 해결 (빈곤, 고립, 안전 등)	67	9.2
	복지 정보 및 연계 (필요한 서비스 안내)	82	11.2
	주민 참여 유도 (봉사 등 지역사회에 기여 기회 제공)	52	7.1
	취약계층 특별 지원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109	14.9
	주민 의견 반영 (복지 정책에 주민 의견 반영 노력)	31	4.2
	기타	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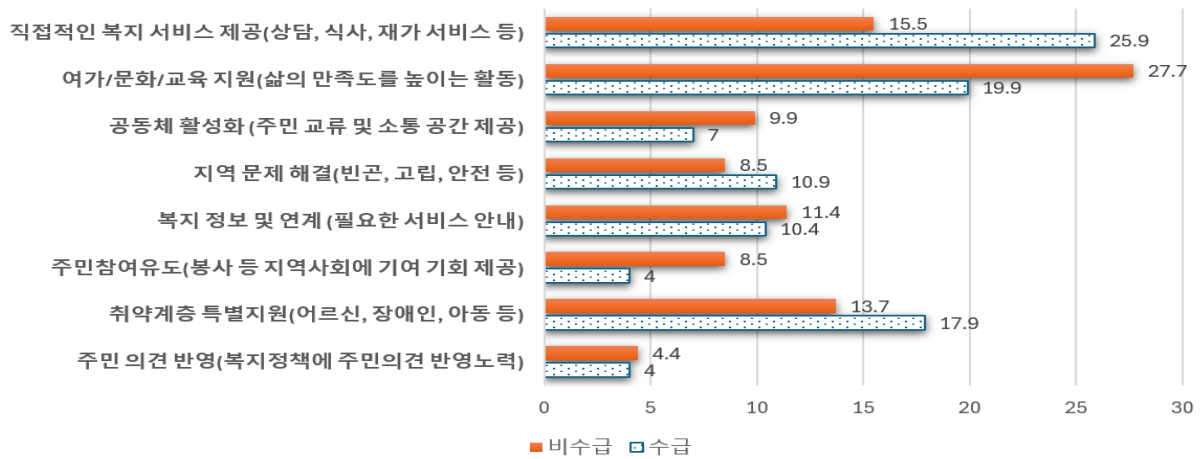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 주민들은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여가/문화/교육 지원’ (25.6%)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욕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18.5%)과 ‘취약계층 특별 지원’ (14.9%)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 식사, 재가 서비스 등)	41	20.1	37	16.7	25	19.2	19	22.9
여가/문화/교육 지원 (삶의 만족도 높이는 활동)	49	24.0	59	26.7	36	27.7	16	19.3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	19	9.3	25	11.3	10	7.7	6	7.2
지역 문제 해결 (빈곤, 고립, 안전 등)	17	8.3	21	9.5	11	8.5	9	10.8
복지 정보 및 연계 (필요한 서비스 안내)	22	10.8	22	10.0	9	6.9	12	14.5
주민 참여 유도 (봉사 등 지역사회에 기여기회 제공)	12	5.9	17	7.7	14	10.8	5	6.0
취약계층 특별 지원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33	16.2	26	11.8	22	16.9	12	14.5
주민 의견 반영 (복지 정책에 주민 의견 반영 노력)	11	5.4	12	5.4	3	2.3	4	4.8
기타	0	0.0	2	0.9	0	0.0	0	0.0
합계 (중복응답)	204	100	221	100	130	100	83	100

동별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여가/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현동(27.7%), 청림동(26.7%), 행운동(24.0%)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특별 지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현동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22.9%)의 기대가 가장 높았고, ‘여가/문화/교육 지원’(19.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현동은 특히 ‘복지 정보 및 연계’와 ‘취약계층 특별 지원’에 대한 기대가 14.5%로 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서비스와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분석 (수급자 / 비수급자)



동일 문항에 대해 수급 여부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여가/문화/교육 지원’은 비수급자(27.7%)가 수급자(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수급자 집단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및 문화 활동을 복지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수급자(25.9%)의 응답이 비수급자(15.5%)보다 높게 응답했다. 이는 복지관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수급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취약계층 특별 지원’ 역시 수급자(17.9%)가 비수급자(13.7%)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복지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는 수급자들의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복지 욕구 \_ 건강 및 의료

[표 14-1]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구분		n=588 (단위 : 명, %)	
		빈도	%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b>모두</b> 선택해 주십시오.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123	20.9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75	12.8
	신체 활동의 어려움 (거동불편, 만성 통증, 관절염 등)	93	15.8
	시력/청력 등 감각 기능 저하	64	10.9
	치과 관련 문제	58	9.9
	기타 (직접 작성)	5	0.9
	해당 없음	170	28.9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9%가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 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신체 활동의 어려움**’ (15.8%)과 ‘**정신 건강 문제**’ (12.8%)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상당수가 만성 질환 및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복지관은 만성 질환 관리 교육, 신체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4-2]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35	18.6	36	23.8	21	21.4	24	27.6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28	14.9	20	13.2	13	13.3	5	5.7
신체 활동의 어려움 (거동 불편, 만성 통증, 관절염 등)	31	16.5	21	13.9	12	12.2	19	21.8
시력/청력 등 감각 기능 저하	23	12.2	13	8.6	11	11.2	15	17.2
치과 관련 문제	16	8.5	17	11.3	7	7.1	14	16.1
기타 (직접 작성)	0	0	2	1.3	3	3.1	0	0
해당 없음	55	29.3	42	27.8	31	31.6	10	11.5
합계 (중복응답)	133	100	107	100	64	100	77	100

동별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분석 결과, 모든 동에서 ‘**만성 질환**’ 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남현동은 특히 ‘만성 질환’ (27.6%), ‘신체 활동의 어려움’ (21.8%), ‘시력/청력 등 감각 기능 저하’ (17.2%), ‘치과 관련 문제’ (16.1%) 등 신체 건강 관련 문제의 응답 비율이 타 동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현동 주민들의 건강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신 건강 문제’ 의 비율은 남현동에서 5.7%로 가장 낮았고, 행운동(14.9%)과 성현동(13.3), 청림동(1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1]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 여부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335	79.6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 경험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4%가 지난 1년간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한 주민 5명 중 1명꼴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불편함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표 15-2]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 여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23	17.2	33	30.3	10	13.5	13	26.0
아니오	111	82.8	76	69.7	64	86.5	37	74.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 여부 분석 결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라는 응답은 청림동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현동(26.0%), 행운동(17.2%), 성현동(13.5%)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동에서 ‘아니오’ 응답이 높았으나, 청림동과 남현동 주민 4명 중 약 1명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6-1] 의료기관 이용 시 겪은 어려움

n=418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정보 부족 (어떤 병원 / 치료를 받을지 모름)	75	12.8
병원 가기 어려움 (교통 불편 등)	93	15.8
대기 시간이 김	64	10.9
전문 의료 인력 부족	58	9.9
기타	5	0.9

의료기관 이용 시 겪는 어려움 조사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비 부담’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원 가기 어려움’ (15.8%)과 ‘정보 부족’ (12.8%)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 물리적 접근성, 정보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2] 의료기관 이용 시 겪은 어려움\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병원비 부담	9	30.0	18	42.9	4	30.8	5	35.7
정보 부족 (어떤 병원 / 치료를 받을지 모름)	4	13.3	8	19.0	2	15.4	1	7.2
병원 가기 어려움 (교통 불편 등)	11	36.7	10	23.8	3	23.1	5	35.7
대기 시간이 김	5	16.7	4	9.5	1	7.7	3	21.4
전문 의료 인력 부족	1	3.3	2	4.8	3	23.0	0	0
합계 (중복응답)	30	100	42	100	13	100	14	100

동별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요인 분석 결과, 행운동 주민들은 ‘병원 가기 어려움 (교통 불편 등)’ 을 36.7%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병원비 부담’ 도 30.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림동 주민들은 ‘병원비 부담’ 을 42.9%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남현동 주민들 역시 ‘병원 가기 어려움 (교통 불편 등)’ 과 ‘병원비 부담’ 을 각각 35.7%로 가장 높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성현동 주민들은 ‘병원비 부담’ (30.8%)와 ‘병원 가기 어려움’ (23.1%) 외에도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을 23.0%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17-1] 만성 질환 및 꾸준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만성 질환이 있거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십니까?	예	251	51.1
	아니오	206	48.9

만성 질환 및 꾸준한 건강 관리 필요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1%가 만성 질환이 있거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 2명 중 1명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만성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2] 만성 질환 및 꾸준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61	45.5	65	59.6	31	41.9	38	76.0
아니오	73	54.5	44	40.4	43	58.1	12	24.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현동이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동의 응답률(행운동 45.5%, 성현동 41.9%, 청림동 59.6%)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앞서 남현동에서 만성 질환 및 신체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던 분석 결과와 일치하며, 남현동 주민들이 건강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8-1]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n=293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만성 질환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질병 관련 교육 (예: 당뇨 식단, 약 복용법 등)	50	17.1
	운동 프로그램 (예: 건강 체조, 걷기 모임 등)	98	33.4
	식단 관리 지원 (예: 영양 상담, 저염식 제공 등)	48	16.4
	정서적 지지 (예: 우울감 상담, 환우 모임 등)	34	11.6
	의료비 지원	59	20.1
	기타	4	1.4

만성 질환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운동 프로그램’ (33.4%)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 (20.1%)과 ‘질병 관련 교육’ (17.1%)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 활동,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보 습득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요구에 맞춰 운동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표 18-2]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질병 관련 교육 (예: 당뇨 식단, 약 복용법 등)	17	21.5	12	12.9	12	26.7	5	10.9
운동 프로그램 (예: 건강 체조, 걷기 모임 등)	16	20.3	37	39.8	17	37.8	17	37.0
식단 관리 지원 (예: 영양상담, 저염식 제공 등)	18	22.8	14	15.1	6	13.3	3	6.5
정서적 지지 (예: 우울감 상담, 환우 모임 등)	11	13.9	11	11.8	4	8.9	5	10.9
의료비 지원	15	19.0	17	18.3	6	13.3	16	34.8
기타	2	2.5	2	2.2	0	0.0	0	0.0
합계 (중복응답)	79	100	93	100	45	100	46	100

동별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분석 결과, 주민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운동 프로그램’ 으로, 청림동(39.8%), 성현동(37.8%), 남현동(37.0%)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남현동에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 3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동의 응답률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남현동 주민들이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과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행운동에서는 ‘식단 관리 지원’ (22.8%)이 가장 높았으며, 성현동에서는 ‘질병 관련 교육’ (26.7%)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동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건강 지원 분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9-1]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정신 건강 관리(우울감, 스트레스 관리 등)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150	35.6
	아니오	271	64.4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6%가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한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체 건강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관이 정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9-2]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 \_ 동별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50	37.3	35	32.1	27	36.5	22	44.0
아니오	84	62.7	74	67.9	47	63.5	28	56.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 분석 결과,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현동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현동 주민 약 10명 중 4명 이상이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운동(37.3%)과 성현동(36.5%)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표 20-1]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구분		n=201 (단위 : 명, %)	
		빈도	%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상담	64	31.8
	심리 검사	51	25.4
	집단 프로그램 (예: 스트레스 해소 모임, 명상 등)	61	30.3
	약물 치료 연계	25	12.4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상담 (31.8%)**’을 원했으며, 다음으로 ‘**집단 프로그램 (30.3%)**’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 검사’ 도 25.4%를 차지했다. 이는 주민들이 개인적인 대화나 모임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전문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과 맞춤형 집단 프로그램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신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0-2]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_ 동별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담	16	30.2	19	33.3	13	33.3	9	33.3
심리 검사	15	28.3	13	22.8	10	25.6	7	25.9
집단 프로그램 (예: 스트레스 해소 모임, 명상 등)	11	20.8	16	28.1	13	33.3	9	33.3
약물 치료 연계	11	20.8	9	15.8	3	7.7	2	7.4
합계 (중복응답)	53	100	57	100	39	100	27	100

동별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 분석 결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모든 동에서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심리 지원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라. 복지 욕구 \_ 경제, 주거, 일자리

[표 21-1] 경제적 어려움

		n=59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현재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121	20.5
	주거비 (월세, 전세 대출 이자 등) 부담	63	10.7
	식비 등 생활비 부족	78	13.2
	자녀 교육비 부담	70	11.8
	의료비 / 간병비 부담	80	13.5
	빚 문제 (대출 등)	34	5.8
	해당 없음	145	24.5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20.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의료비/간병비 부담’ (13.5%), ‘식비 등 생활비 부족’ (13.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주민이 불안정한 소득과 높은 생활비,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2] 경제적 어려움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43	23.1	30	19.0	21	21.9	11	14.9
주거비 (월세, 전세 대출 이자 등) 부담	21	11.3	18	11.4	6	6.3	10	13.5
식비 등 생활비 부족	24	12.9	20	12.7	17	17.7	11	14.9
자녀 교육비 부담	19	10.2	16	10.1	13	13.5	3	4.1
의료비 / 간병비 부담	19	10.2	25	15.8	11	11.5	19	25.7
빚 문제 (대출 등)	13	7.0	7	4.4	2	2.1	5	6.8
해당 없음	47	25.3	42	26.6	26	27.1	15	20.3
합계 (중복응답)	186	100	158	100	96	100	74	100

동별 경제적 어려움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이었다. (행운동 23.1%, 성현동 21.9%, 청림동 19.0%). 남현동에서는 ‘의료비/간병비 부담’이 25.7%로 가장 높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동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는 남현동 주민들이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과 의료비 지원 요구가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 일자리 관련 필요한 도움

		n=625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156	25.0
	직업 훈련 및 교육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	100	16.0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이력서, 면접 준비 등)	32	5.1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94	15.0
	창업 지원 (교육, 자금, 컨설팅 등)	46	7.4
	직업 관련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32	5.1
	해당 없음	165	26.4

일자리 관련 필요 도움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25.0%)을 원했다. 다음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 (16.0%)과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15.0%)가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정보와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표 22-2] 일자리 관련 필요한 도움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47	26.9	52	26.9	25	23.8	10	17.2
직업 훈련 및 교육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	27	15.4	32	16.6	21	20.0	6	10.3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이력서, 면접 준비 등)	7	4.0	14	7.3	4	3.8	2	3.4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28	16.0	28	14.5	17	16.2	2	3.4
창업 지원 (교육, 자금, 컨설팅 등)	8	4.6	16	8.3	4	3.8	5	8.6
직업 관련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6	3.4	13	6.7	4	3.8	2	3.4
해당 없음	52	29.7	38	19.7	30	28.6	31	53.4
합계 (중복응답)	175	100	193	100	105	100	58	99.7

동별 일자리 관련 도움 분석 결과,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으로, 행운동 (26.9%), 청림동 (26.9%), 성현동 (23.8%)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현동은 ‘직업 훈련 및 교육’ (20.0%)와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16.2%)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림동은 ‘직업 훈련 및 교육’ (16.6%)과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14.5%)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현동은 대부분의 직업 지원 항목에서 요구 비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해당 없음’ 응답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전 분석 결과 남현동 주민들이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직업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느끼거나, 복지관의 지원 범위 외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23-1]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불만족	15	3.6
	불만족	47	11.2
	보통	164	39.0
	만족	141	33.5
	매우 만족	54	12.8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33.5%)과 ‘보통’ (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 만족’ 응답도 12.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46.3%가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 (11.2%)과 ‘매우 불만족’ (3.6%)을 합친 불만족 응답은 14.8%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 주민이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 23-2]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불만족	8	6.0	4	3.7	1	1.4	2	4.0
불만족	17	12.7	12	11.1	5	6.8	6	12.0
보통	49	36.6	43	39.4	28	37.8	19	38.0
만족	42	31.3	37	33.9	28	37.8	18	36.0
매우 만족	18	13.4	13	11.9	12	16.2	5	10.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주거 환경 만족도 분석 결과, 주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만족 + 매우 만족) 비율은 성현동이 54.0%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현동은 ‘매우 만족’ 응답이 16.2%로 가장 높아,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현동은 46.0%, 청림동은 45.8%로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반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비율은 행운동이 18.7%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운동은 ‘매우 불만족’ 응답도 6.0%로 가장 높아, 다른 동에 비해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현동은 불만족 비율이 8.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1]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

		n=155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주거환경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인 경우)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습니까?	주거비 부담 (월세, 전세금 등)	32	20.6
	집이 낡고 오래됨 (곰팡이, 냉난방, 누수 등)	52	33.5
	집 공간이 좁음	40	25.8
	안전 문제 (방법, 화재, 층간 소음 등)	30	19.4
	기타	1	0.6

주거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집이 낡고 오래됨’ (3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집 공간이 좁음’ (25.8%)과 ‘주거비 부담’ (20.6%)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노후 된 시설, 협소한 공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24-2]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주거비 부담 (월세, 전세금 등)	8	14.5	12	25.0	2	12.5	7	38.9
집이 낡고 오래됨 (곰팡이, 냉난방, 누수 등)	21	38.2	17	35.4	3	18.8	5	27.8
집 공간이 좁음	14	25.5	11	22.9	6	37.5	2	11.2
안전 문제 (방법, 화재, 층간 소음 등)	12	21.8	8	16.7	5	31.3	4	22.2
합계 (중복응답)	55	100	48	100	16	100	18	100

동별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 분석 결과, 행운동과 청림동에서는 ‘집이 낡고 오래됨’ 이 각각 38.2%와 35.4%로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였다. 성현동에서는 ‘집 공간이 좁음’ 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 문제’ 도 31.3%로 높게 나타났다. 남현동은 ‘주거비 부담’ 이 38.9%로 가장 높은 불만족 사유였으며, 또한 ‘집이 낡고 오래됨’ (27.8%)과 ‘안전 문제’ (22.2%)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남현동 주민들이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질과 경제적 부담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1] 주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n=517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주거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지원	89	17.2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등)	115	22.2
	주거비 (월세, 전세 자금 대출 등) 지원 확대	112	21.7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단열 개선, 난방비 지원 등)	149	28.8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쪽방 등)을 위한 주거 지원	52	10.1

주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28.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 환경 개선’ (22.2%)과 ‘주거비 지원’ (21.7%)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낡은 집을 개선하고 주거비를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2] 주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n=517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지원	28	17.5	23	19.0	9	10.7	10	15.4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등)	28	17.5	28	23.1	27	32.1	12	18.5
주거비 (월세, 전세 자금 대출 등) 지원 확대	42	26.3	24	19.8	14	16.7	16	24.6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단열 개선, 난방비 지원 등)	45	28.1	35	28.9	25	29.8	20	30.8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쪽방 등)을 위한 주거 지원	17	10.6	11	9.1	9	10.7	7	10.8
합계 (중복응답)	160	100	121	100	84	100	65	100

동별 주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분석 결과, 주민들이 주거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으로 모든 동에서 높은 비율(28.1% ~ 30.8%)로 나타났다. 행운동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28.1%)와 ‘주거비 지원 확대’ (26.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청림동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28.9%)과 ‘주거환경 개선’ (23.1%)을 주요하게 희망했다. 성현동은 ‘주거 환경 개선’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 분석에서 ‘집 공간이 좁음’과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현동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30.8%)와 ‘주거비 지원 확대’ (24.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전 분석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주거 불만족 사유였던 점을 뒷받침하며, 남현동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마. 복지 욕구 \_ 사회관계 및 여가 / 문화

[표 26-1]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낀 정도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최근 1개월 내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거의 매일 (매우 심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20	4.8
	자주 (상당히 빈번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33	7.8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142	33.7
	거의 없음 (거의 느끼지 못함)	103	24.5
	전혀 없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함)	123	29.2

최근 한 달 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7%가 ‘가끔’, ‘자주’, 또는 ‘거의 매일’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끔(어쩌다 한 번씩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느낀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거의 없음’ (24.5%)과 ‘전혀 없음’ (29.2%)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심각하진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6-2]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낀 정도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거의 매일 (매우 심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10	7.5	3	2.8	3	4.1	2	4.0
자주 (상당히 빈번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9	6.7	12	11.0	3	4.1	6	12.0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47	35.1	34	31.2	29	39.2	20	40.0
거의 없음 (거의 느끼지 못함)	30	22.4	23	21.1	17	23.0	15	30.0
전혀 없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함)	38	28.3	37	33.9	22	29.6	7	14.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최근 한 달 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낀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남현동 주민들이 56.0%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자주’ (12.0%)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운동은 전체 응답률은 49.3%로 중간 수준이지만, ‘거의 매일’ (7.5%)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네 개 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림동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5.0%로 가장 낮았고, 33.9%의 응답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다.

[표 27-1]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가 어려운 이유

n=55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간 부족	59	10.7
	정보 부족 (모임이나 프로그램 정보)	117	21.2
	경제적 부담	80	14.5
	몸이 불편해서 (이동 어려움 등)	26	4.7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움 (성격, 대인관계 문제 등)	58	10.5
	관심 있는 활동이 없음	52	9.4
	기타	2	0.4
	해당없음	157	28.5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 (모임이나 프로그램 정보, 2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 (14.5%)과 ‘시간부족’ (10.7%),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움’ (10.5%)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교류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경제적, 시간적 제약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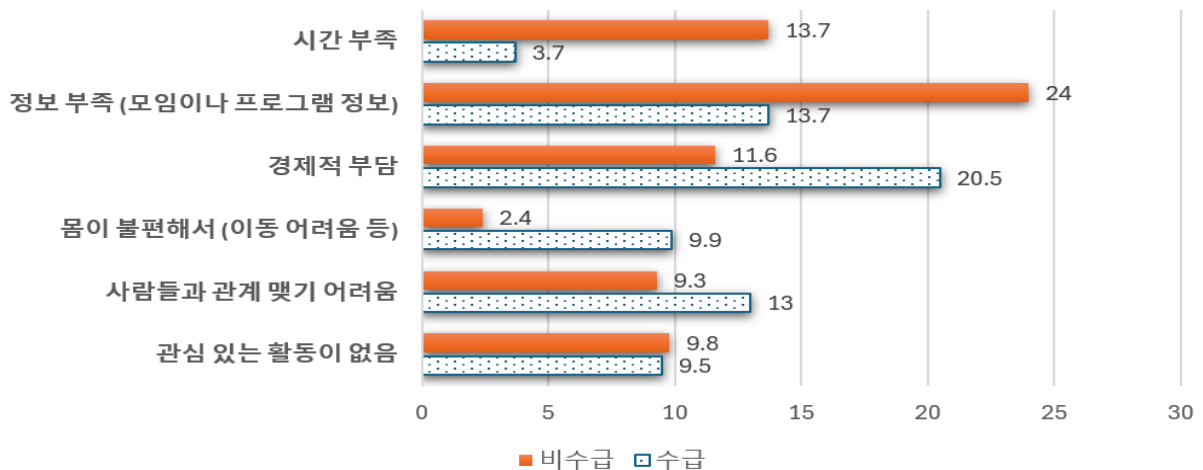
[표 27-2]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가 어려운 이유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시간 부족	15	8.8	16	11.1	10	9.4	2	3.6
정보 부족 (모임이나 프로그램 정보)	31	18.2	33	22.9	24	22.6	12	21.4
경제적 부담	24	14.1	22	15.3	14	13.2	8	14.3
몸이 불편해서 (이동 어려움 등)	9	5.3	5	3.5	9	8.5	1	1.8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움 (성격, 대인관계 문제 등)	20	11.8	19	13.2	9	8.5	2	3.6
관심 있는 활동이 없음	12	7.1	12	8.3	11	10.4	9	16.1
기타	1	0.6	0	0.0	1	0.9	0	0.0
해당없음	58	34.1	37	25.7	28	26.4	22	39.3
합계 (중복응답)	170	100	144	100	106	100	56	100

동별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가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는 ‘정보 부족 (모임이나 프로그램 정보)’으로, 청림동(22.9%)과 성현동(2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현동은 정보 부족 외에 ‘관심 있는 활동이 없음’ (16.1%), 행운동은 ‘경제적 부담’ (14.1%)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맺기 어려움’ (11.8%)이 함께 나타나 경제적 및 심리적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없음’도 (25.7% ~ 39.9%)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주민 4명 중 1명은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가 어려운 이유 (수급자 / 비수급자)



수급 여부에 따른 지역사회 교류의 어려움 차이를 살펴 보면, 비수급자는 ‘정보 부족’ (24%)과 ‘시간 부족’ (13.7%)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으며, 이는 수급자 (각각 13.7%,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는 ‘경제적 부담’ (20.5%)과 ‘관계 맺기 어려움’ (13%), ‘신체적 불편함’ (9.9%), 을 비수급자보다 크게 느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수급자에게 비수급자(11.6%)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28-1]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n=603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	239	39.6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81	13.4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126	20.9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59	9.8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	92	15.3
	기타	6	1.0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 (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0.9%)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지원’ (15.3%),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13.4%)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주로 취미나 관심사 중심의 모임, 지역 사회 내 교류,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해 사회 관계를 넓히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2]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	71	39.7	61	36.5	43	39.8	25	39.1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20	11.2	23	13.8	18	16.7	9	14.1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37	20.7	34	20.4	25	23.1	15	23.4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19	10.6	18	10.8	8	7.4	6	9.4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	29	16.2	28	16.8	14	13.0	9	14.1
기타	3	1.7	3	1.8	0	0.0	0	0.0
합계 (중복응답)	179	100	167	100	108	100	64	100

동별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분석 결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은 모든 동에서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행운동(39.7%), 성현동(39.8%), 남현동(39.1%)에서 약 40%에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높은 요구를 보인 항목은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성현동(23.1%)과 남현동(23.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복지관을 통해 개인의 취미 활동과 이웃과의 소통 창구를 모두 활성화하기를 기대함을 시사한다. 남현동은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과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관계 형성 자체보다는 외부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교류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29-1] 여가 문화 활동 참여 충분함 정도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지난 1년 동안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충분히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37	8.8
	충분한 편이다	77	18.3
	보통이다	155	36.8
	부족한 편이다	103	24.5
	매우 부족하다	49	11.6

지난 1년간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주민이 36.8%, ‘부족한 편이다’ (24.5%)와 ‘매우 부족하다’ (11.6%)를 합한 ‘부족하다’ 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29-2] 여가 문화 활동 참여 충분함 정도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충분하다	10	7.5	14	12.8	6	8.1	3	6.0
충분한 편이다	26	19.4	16	14.7	15	20.3	13	26.0
보통이다	46	34.3	39	35.8	31	41.9	17	34.0
부족한 편이다	32	23.9	28	25.7	14	18.9	13	26.0
매우 부족하다	20	14.9	12	11.0	8	10.8	4	8.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여가 문화 활동 참여 충분함 정도 분석 결과, 여가 문화 활동 참여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한 편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남현동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현동은 ‘충분한 편이다’ 라는 응답이 26.0%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림동은 27.5%, 성현동은 28.4%, 행운동은 26.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행운동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림동도 36.7%로 뒤를 이었다. 행운동은 ‘매우 부족하다.’ 라는 응답도 14.9%로 가장 높아,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현동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1.9%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아, 남현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 주민들이 여가 활동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0-1]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

		n=759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평소 어떤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운동 (걷기, 요가, 헬스, 수영 등)	275	36.2
	취미 활동 (공예, 음악, 미술, 글쓰기, 악기연주 등)	124	16.3
	여행	119	15.7
	독서	49	6.5
	영화/공연/전시 관람	90	11.9
	봉사 활동	44	5.8
	지역 축제/행사 참여	58	7.6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운동’ (걷기, 요가, 헬스, 수영 등)에 36.2%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취미 활동’ (16.3%)과 ‘여행’ (15.7%)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건강과 자기계발, 그리고 재충전을 위한 여가 활동에 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운동과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0-2]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운동 (걷기, 요가, 헬스, 수영 등)	79	32.6	75	38.3	54	38.0	32	43.8
취미 활동 (공예, 음악, 미술, 글쓰기, 악기연주 등)	37	15.3	29	14.8	24	16.9	16	21.9
여행	44	18.2	29	14.8	19	13.4	9	12.3
독서	17	7.0	12	6.1	9	6.3	3	4.1
영화/공연/전시 관람	35	14.5	22	11.2	17	12.0	2	2.7
봉사 활동	12	5.0	14	7.1	8	5.6	7	9.6
지역 축제/행사 참여	18	7.4	15	7.7	11	7.7	4	5.5
합계 (중복응답)	242	100	196	100	142	100	73	100

동별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 분석 결과,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는 모든 동에서 ‘운동’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현동은 43.8%로 가장 높은 운동 선호도를 보였으며, 청림동(38.3%)과 성현동(38.0%)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취미 활동 (공예, 음악, 미술, 글쓰기, 악기 연주 등)’ 이었다. 남현동이 21.9%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성현동(16.9%)과 행운동(15.3%)이 뒤를 이었다. ‘여행’ 분야에 대한 관심은 행운동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영화/공연/전시 관람’ 에 대한 관심도 행운동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운동 주민들이 외부 활동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31-1] 여가 및 문화 활동 어려움 여부

구분		n=421 (단위 : 명, %)	
		빈도	%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 십니까?	예	149	35.4
	아니오	272	64.6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4%가 ‘예’ 라고 답했다. 이는 응답 주민 3명 중 1명 이상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64.6%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표 31-2] 여가 및 문화 활동 어려움 여부\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46	34.3	47	43.1	19	25.7	19	38.0
아니오	88	65.7	62	56.9	55	74.3	31	62.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여가 및 문화 활동 어려움 여부 분석 결과,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림동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현동이 38.0%, 행운동이 34.3%로 나타났으며, 성현동(25.7%)이 가장 낮았다. 청림동과 남현동에서는 주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1]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

구분		n=230 (단위 : 명, %)	
		빈도	%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시간 부족	36	15.7
	경제적 부담	65	28.3
	정보 부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름)	41	17.8
	프로그램 부족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25	10.9
	함께 할 사람 부족	26	11.3
	몸이 불편해서 (거동 불편, 건강 문제 등)	37	16.1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 (28.3%)을 꼽았다. 다음으로 ‘정보 부족’ (17.8%)과 ‘시간 부족’ (15.7%)이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주민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비용이나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저렴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2-2]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시간 부족	4	6.9	12	14.1	10	30.3	2	8.0
경제적 부담	21	36.2	21	24.7	7	21.2	7	28.0
정보 부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름)	11	19.0	16	18.8	6	18.2	3	12.0
프로그램 부족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2	3.4	15	17.6	2	6.1	3	12.0
함께 할 사람 부족	6	10.3	11	12.9	3	9.1	3	12.0
몸이 불편해서 (거동 불편, 건강 문제 등)	14	24.1	10	11.8	5	15.2	7	28.0
합계 (중복응답)	58	100	85	100	33	100	25	100

동별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 분석결과, **행운동, 청림동, 남현동은 ‘경제적 부담’ (24.7~36.2%)**이 가장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성현동은 ‘시간부족’ (30.3%)**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남현동은 ‘몸이 불편해서’ (28.0%)와 ‘경제적 부담’ (28.0%)이 공동 1위였으며, 청림동은 ‘경제적 부담’ (24.7%) 외에도 ‘정보 부족’ (18.8%) 과 ‘프로그램 부족’ (17.6%) 응답이 높아, 비용 문제와 함께 원하는 활동 정보 및 내용의 부족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표 33-1] 여가 및 문화 활동 필요 프로그램

n=625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어떤 여가/문화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공연, 전시, 영화 등)	205	32.8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악기, 미술, 요리, 운동 등)	185	29.6
	지역 문화/체육 시설 이용 개선 (교통 편의, 정보 제공 등)	96	15.4
	가족 단위 참여 여가 프로그램	48	7.7
	어르신/청소년 등 세대 간 교류 여가 활동	34	5.4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 (스마트폰, SNS 등)	57	9.1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29.6%)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은 **비용 부담이 적은 문화 행사나 다양한 취미 강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3-2] 여가 및 문화 활동 필요 프로그램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공연, 전시, 영화 등)	62	33.9	49	29.3	40	33.6	22	34.9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악기, 미술, 요리, 운동 등)	56	30.6	43	25.7	32	26.9	20	31.7
지역 문화/체육 시설 이용 개선 (교통 편의, 정보 제공 등)	27	14.8	27	16.2	19	16.0	8	12.7
가족 단위 참여 여가 프로그램	10	5.5	19	11.4	9	7.6	2	3.2
어르신/청소년 등 세대 간 교류 여가 활동	10	5.5	7	4.2	9	7.6	5	7.9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 (스마트폰, SNS 등)	18	9.8	22	13.2	10	8.4	6	9.5
합계 (중복응답)	183	100	167	100	119	100	63	100

동별 여가 및 문화 활동 필요 프로그램 분석 결과, 주민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동에서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과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 바. 복지 욕구 \_ 돌봄 및 교육

[표 34-1] 돌봄 필요 가족 여부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현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 계십니까?	예	130	30.9
	아니오	291	69.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9%가 ‘있다’ 라고 답했다. 이는 응답 주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2] 돌봄 필요 가족 여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34	25.4	32	29.4	26	35.1	12	24.0
아니오	100	74.6	77	70.6	48	64.9	38	76.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돌봄 필요 가족 여부 분석 결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현동이 35.1%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림동 역시 29.4%, 행운동은 25.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돌봄 수요를 보였다.

[표 35-1] 돌봄이 필요한 가족

		n=157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가족 내 어떤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영유아 자녀	19	12.1
	학령기 자녀	54	34.4
	신체장애	14	8.9
	정신장애	16	10.2
	거동불편 노인	29	18.5
	치매 노인	10	6.4
	기타	15	9.6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응답자(157명) 중 가장 많은 34.4%가 ‘학령기 자녀’ 를 돌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동 불편 노인’ 이 18.5%, ‘영유아 자녀’ 가 12.1%로 나타났다.

[표 35-2] 돌봄이 필요한 가족 \_ 동별

구분	n=157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영유아 자녀	5	12.5	3	7.5	6	18.8	1	7.1
학령기 자녀	9	22.5	18	45.0	14	43.8	1	7.1
신체장애	4	10.0	4	10.0	1	3.1	3	21.4
정신장애	5	12.5	4	10.0	1	3.1	1	7.1
거동불편 노인	11	27.5	6	15.0	4	12.5	4	28.7
치매 노인	3	7.5	3	7.5	0	0.0	2	14.3
기타	3	7.5	2	5.0	6	18.7	2	14.3
합계	40	100	40	100	32	100	14	100

동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현동은 거동불편 노인(28.7%)과 신체장애(21.4%), 치매 노인(14.3%) 등 중증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른 동보다 높게 나타나, 돌봄 필요 가족의 응답율이 타 동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질적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동과 청림동의 경우, 학령기 자녀 돌봄 비율이 각각 43.8%와 45.0%로 가장 높아, 아동·청소년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36-1]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n=236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피로함	52	22.0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51	21.6
	경제적 부담 (돌봄 비용 등)	58	24.6
	돌봄 관련 정보 부족	20	8.5
	돌봐줄 사람 부족	27	11.4
	사회생활 제약 (외출 어려움, 경력 단절 등)	28	11.9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 (24.6%)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몸이 피로함’ (22.0%)과 ‘정신적 스트레스’ (21.6%)가 뒤를 이었다. 이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돌봄 관련 정보 부족’ (8.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복지관 차원에서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휴식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6-2]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몸이 피로함	12	19.6	10	16.7	11	23.4	2	8.3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17	27.9	11	18.3	8	17.0	5	20.8
경제적 부담 (돌봄 비용 등)	15	24.6	16	26.7	13	27.7	6	25.0
돌봄 관련 정보 부족	4	6.6	7	11.7	5	10.6	3	12.5
돌봐줄 사람 부족	7	11.5	5	8.3	9	19.1	1	4.2
사회생활 제약 (외출 어려움, 경력 단절 등)	6	9.8	11	18.3	1	2.2	7	29.2
합계 (중복응답)	61	100	60	100	47	100	24	100

동별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현동은 ‘사회생활 제약 (외출 어려움, 경력 단절 등)’ 이 29.2%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일상생활 제약이 심각함을 나타냈다. 성현동은 ‘경제적 부담’ 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몸이 피로함’ (23.4%)가 뒤를 이어,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행운동은 ‘정신적 스트레스’ 가 27.9%로 가장 높은 어려움이었으며, ‘경제적 부담’ (24.6%)와 ‘몸이 피로함’ (19.6%)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림동 역시 ‘경제적 부담’ 이 26.7%로 가장 높았고, ‘사회생활 제약’ (18.3%)도 행운동, 성현동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7-1]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n=309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어떤 종류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돌봄 인력 지원 (아이 돌보미, 요양 보호사 등)	51	16.5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 시)	55	17.8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24	7.8
	돌봄관련 정보제공 (지원제도, 서비스 기관 등)	44	14.2
	돌봄 교육 (돌봄 기술, 대처 방법 등)	29	9.4
	돌봄으로 인한 심리 상담	28	9.1
	경제적 지원 (돌봄 수당 등)	78	25.2

주민들이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2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17.8%)와 ‘돌봄 인력 지원’ (16.5%)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37-2]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돌봄 인력 지원 (아이 돌보미, 요양 보호사 등)	15	17.4	16	19.3	10	16.1	1	5.3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 시)	15	17.4	12	14.5	17	27.4	3	15.8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6	7.0	6	7.2	7	11.3	1	5.3
돌봄관련 정보제공 (지원제도, 서비스 기관 등)	13	15.1	12	14.5	7	11.3	1	5.3
돌봄 교육 (돌봄 기술, 대처 방법 등)	7	8.2	9	10.8	4	6.5	1	5.3
돌봄으로 인한 심리 상담	6	7.0	8	9.6	6	9.7	4	21.0
경제적 지원 (돌봄 수당 등)	24	27.9	20	24.1	11	17.7	8	42.0
합계 (중복응답)	86	100	83	100	62	100	19	100

동별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 분석 결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과 ‘돌봄 인력 지원’ 또는 ‘긴급 돌봄 서비스’ 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남현동은 ‘경제적 지원’ 에 대한 요구가 42.0%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으로 인한 심리 상담’ 에 대한 요구도 21.0%로 높게 나타났다. 성현동은 ‘긴급 돌봄 서비스’ (27.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청림동은 ‘경제적 지원’ (24.1%)와 ‘돌봄 인력 지원’ (19.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38-1] 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

n=486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비 부담	96	19.8
	성인 학습 기회 부족 (문해 교육, 자격증 취득 등)	42	8.6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등) 부족	88	18.1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용 어려움 (거리, 시간 등)	62	12.8
	기타	2	0.4
	해당 없음	196	40.3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교육 관련 어려움은 ‘자녀 교육비 부담’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화 교육 부족(18.1%)이 뒤를 이었으며, 성인 학습 기회 부족과 특정 프로그램 이용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이 단순히 자녀 교육 지원을 넘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8-2] 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교육비 부담	26	17.6	23	16.9	18	21.4	3	5.9
성인 학습 기회 부족 (문해 교육, 자격증 취득 등)	10	6.8	14	10.3	8	9.5	3	5.9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등) 부족	23	15.4	36	26.5	15	17.9	3	5.9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용 어려움 (거리, 시간 등)	18	12.2	16	11.7	14	16.7	5	9.8
해당 없음	71	48.0	47	34.6	29	34.5	37	72.5
합계 (중복응답)	148	100	136	100	84	100	51	100

동별 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 분석 결과,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없음’ 응답이 남현동에서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운동(48.0%)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남현동 주민들이 다른 영역(건강, 경제)에 비해 교육 영역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거나, 교육에 대한 요구 자체가 낮음을 시사한다. 청림동은 ‘정보화 교육 부족’ 이 26.5%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성현동은 ‘자녀 교육비 부담’ (21.4%)와 ‘정보화 교육 부족’ (17.9%)이 주요 어려움이였다.

[표 39-1] 필요한 교육 내용

n=529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부모 교육, 은퇴 교육, 노년층 교육 등)	98	18.5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130	24.6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 교육	69	13.0
	문화 예술 교육	86	16.3
	평생 학습 프로그램 (취미, 교양 등)	146	27.6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프로그램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27.6%)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24.6%)을 가장 필요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취미 생활과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 습득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 관련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녀 교육비 부담**’ (19.8%)과 ‘**정보화 교육 부족**’ (18.1%)이 꼽혔다. 따라서 복지관은 평생 교육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자녀 교육비 지원 정보도 함께 안내하여 주민들의 교육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9-2] 필요한 교육 내용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부모 교육, 은퇴 교육, 노년층 교육 등)	24	14.5	25	17.4	19	18.3	8	21.1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41	24.8	40	27.8	23	22.1	14	36.8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 교육	23	13.9	15	10.4	16	15.4	4	10.5
문화 예술 교육	30	18.3	25	17.4	14	13.5	6	15.8
평생 학습 프로그램 (취미, 교양 등)	47	28.5	39	27.0	32	30.7	6	15.8
합계 (중복응답)	165	100	144	100	104	100	38	100

동별 필요한 교육 내용 분석 결과, ‘**평생 학습 프로그램 (취미, 교양 등)**’ 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현동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애 주기별 맞춤 교육**’ 이 21.1%로 높게 나타났다.

## 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표 40-1]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73	17.3
	잘 알고 있는 편이다	94	22.3
	보통이다	166	39.4
	잘 모르는 편이다	78	18.5
	전혀 모른다	10	2.4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는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22.3%), ‘매우 잘 알고 있다’ (17.3%)를 합치면 전체 39.6%는 지역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20.9%는 지역사회에 대해 잘 모른다 (잘 모르는 편이다(18.5%) + 전혀 모른다(2.4%))고 응답해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 간 유대감 형성, 참여도, 공동체 의식 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지역사회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표 40-2]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잘 알고 있다	20	14.9	21	19.3	9	12.2	12	24.0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6	26.9	20	18.3	17	23.0	10	20.0
보통이다	42	31.3	57	52.3	26	35.1	18	36.0
잘 모르는 편이다	32	23.9	10	9.2	18	24.3	10	20.0
전혀 모른다	4	3.0	1	0.9	4	5.4	0	0.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로 지역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분석 결과, 주민들은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정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중립적인 태도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행운동과 성현동은 ‘잘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라는 응답 각각 26.9%와 29.7%로 지역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지역사회 정보 제공 및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표 41-1]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하는 점

		n=883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우리 동네(거주하고 계신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편리한 교통	245	27.7
	깨끗한 환경	116	13.1
	안전한 치안	98	11.1
	다양한 편의시설 (마트, 병원, 은행 등)	139	15.7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98	11.1
	좋은 이웃 관계	71	8.0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61	6.9
	교육 환경 (학교, 학원 등)	30	3.4
	만족하는 점이 없다	25	2.8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만족하고 있는 점은, ‘편리한 교통’ (27.7%)과 ‘다양한 편의시설’ (15.7%), ‘깨끗한 환경’ (13.1%)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치안과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은 각각 11.1%를 차지했고, 좋은 이웃 관계(8.0%),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6.9%), 교육 환경(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하는 점 \_ 동별

구분	(단위 : 명, %)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편리한 교통	86	35.1	63	26.0	34	24.6	26	19.5
깨끗한 환경	23	9.4	30	12.4	18	13.0	36	27.1
안전한 치안	17	6.9	27	11.2	16	11.6	25	18.7
다양한 편의시설 (마트, 병원, 은행 등)	47	19.1	37	15.3	19	13.8	9	6.8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20	8.2	29	12.0	15	10.9	20	15.0
좋은 이웃 관계	18	7.3	21	8.7	15	10.9	8	6.0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20	8.2	17	7.0	12	8.7	5	3.8
교육 환경 (학교, 학원 등)	7	2.9	8	3.3	6	4.3	3	2.3
만족하는 점이 없다	7	2.9	10	4.1	3	2.2	1	0.8
합계 (중복응답)	245	100	242	100	138	100	133	100

동별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하는 점 분석 결과, ‘편리한 교통’ 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행운동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 에 대한 만족도가 35.1%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편의시설 (마트, 병원, 은행 등)’ 에 대한 만족도 역시 19.1%로 가장 높아, 생활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현동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한 치안’ 에 대한 만족도도 18.7%로 가장 높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청림동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 (26.0%)과 ‘깨끗한 환경’ (12.4%) 외에도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12.0%로 높은 편이었으며, ‘안전한 치안’ 만족도 역시 11.2%로 높게 나타났다. 성현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편리한 교통’ (24.6%)와 ‘깨끗한 환경’ (13.0%)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동에서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표 42-1] 지역사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n=750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불편	40	5.3
	주차 공간 부족	89	11.9
	쓰레기 문제/환경 미흡	62	8.3
	부족한 편의시설	68	9.1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85	11.3
	이웃 간 교류 부족	47	6.3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44	5.9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82	10.9
	교육 환경 미흡	20	2.7
	넓고 오래된 주거 환경	94	12.5
	안전 문제 (범죄, 사고 등)	51	6.8
	없음	68	9.1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넓고 오래된 주거환경’ (12.5%)과 ‘주차 공간 부족’ (11.9%)이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11.3%),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10.9%)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휴식 공간 확충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2] 지역사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중교통 불편	7	3.0	7	3.5	11	8.1	6	9.1
주차 공간 부족	26	11.0	27	13.5	13	9.6	6	9.1
쓰레기 문제/환경 미흡	22	9.3	16	8.0	10	7.4	6	9.1
부족한 편의시설	14	5.9	23	11.5	15	11.0	6	9.1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30	12.7	16	8.0	21	15.4	4	6.1
이웃 간 교류 부족	14	5.9	15	7.5	9	6.6	4	6.1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18	7.6	10	5.0	6	4.4	4	6.1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24	10.2	20	10.0	15	11.0	8	12.1
교육 환경 미흡	5	2.1	6	3.0	2	1.5	1	1.5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	35	14.8	28	14.0	12	8.8	4	6.0
안전 문제 (범죄, 사고 등)	22	9.3	15	7.5	8	5.9	1	1.5
없음	19	8.2	17	8.5	14	10.3	16	24.2
합계 (중복응답)	236	100	200	100	136	100	66	100

동별 지역사회 개선 필요 사항 분석 결과, 행운동 주민들은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 (14.8%),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12.7%) ‘**주차 공간 부족**’ (11.0%)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생활 기반 시설과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청림동 주민들은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 (14.0%), ‘**주차 공간 부족**’ (13.5%), ‘**부족한 편의시설**’ (11.5%)순으로 나타나, 주거의 질과 직접적인 생활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음을 시사한다. 성현동은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15.4%),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과 ‘**부족한 편의시설**’ 이 각각 11.0%로 나타나, 주거 환경보다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과 공간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남현동 주민들은 24.2%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12.1%), ‘**대중교통 불편**’, ‘**주차 공간 부족**’, ‘**쓰레기 문제/환경 미흡**’, ‘**부족한 편의시설**’ 4개 항목이 모두 9.1%로 나타나,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표 43-1]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

n=421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269	63.9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36.1%로 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63.9%의 주민들은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참여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참여 동기를 높이는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표 43-2]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	46	34.3	41	37.6	31	41.9	19	38.0
아니오	88	65.7	68	62.4	43	58.1	31	62.0
합계	134	100	109	100	74	100	50	100

동별 주민 모임이나 활동 참여 의향 분석 결과,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현동이 41.9%**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현동은 38.0%, 청림동은 37.6%, 행운동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할 의향이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행운동이 65.7%로 가장 높았으며, 남현동 (62.0%)와 청림동 (62.4%) 역시 60% 이상의 주민이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 주민이 모임이나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잠재적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개입도 고려가 필요하다.

[표 44-1] 주민모임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점

n=233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주민모임을 통해)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으십니까?	환경 개선 (쓰레기, 미세먼지 등)	28	12.0
	주거 환경 개선 (넓은 주택, 재개발 등)	28	12.0
	안전 문제 (방법, 교통 안전 등)	23	9.9
	지역 주민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28	12.0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고독사, 치매, 정서적 지원 등)	33	14.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39	16.7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37	15.9
	교육 환경 개선	17	7.3

주민들이 주민 모임을 통해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문제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15.9%)와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1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관계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은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44-2] 주민모임을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점 \_ 동별

(단위 : 명, %)

구분	행운동		청림동		성현동		남현동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환경 개선 (쓰레기, 미세먼지 등)	8	12.9	7	11.9	5	11.1	6	18.2
주거 환경 개선 (낡은 주택, 재개발 등)	4	11.9	7	11.9	6	13.3	7	21.2
안전 문제 (방법, 교통 안전 등)	4	11.1	8	13.6	3	6.7	6	18.2
지역 주민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12	18.2	4	6.8	5	11.1	4	12.1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고독사, 치매, 정서적 지원 등)	12	6.3	8	13.6	5	11.1	2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0	16.3	10	16.7	10	22.2	3	9.1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9	14.5	9	15.3	7	15.6	4	12.1
교육 환경 개선	3	4.8	6	10.2	4	8.9	1	3.0
합계(중복응답)	62	96	59	100	45	100	33	100

동별 주민 모임을 통한 문제 해결 기여 의사 분석 결과,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분야는 동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문화 활성화 및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성현동 주민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22.2%로 네 개 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사도 1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현동 주민들의 문화 활동 및 경제 자립 분야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강함을 보여준다.

**남현동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 (낡은 주택, 재개발 등)’**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21.2%로 가장 높아,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었다. ‘환경 개선 (쓰레기, 미세먼지 등)’ 및 ‘안전 문제 (방법, 교통 안전 등)’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각각 18.2%로 높게 나타나, 주거 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주민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행운동 주민들은 ‘지역 주민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18.2%로 나타나, 돌봄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높음을 시사했다.

**청림동 주민들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6.7%)**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15.3%), ‘안전 문제 해결’ (13.6%)에 대한 기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13.6%로 청림동이 가장 높아,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 아. 복지관에 바라는 점

[표 45] 복지관에 바라는 점

n=120

구분
1. 수영장 관련 요구 (총 3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신설, 개장, 수리 및 재개장 요청</li> <li>- 아쿠아로빅 및 수영 프로그램 개설 희망</li> <li>- 인근 지역에 수영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li> </ul>
2.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총 2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교육·취미·문화 프로그램(미술, 음악, 요리 등) 요청</li> <li>- 아동·청소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li> <li>- 어르신 신체활동(근력운동, 에어로빅 등) 추가 요구</li> <li>- 직장인 저녁 프로그램, 소모임 공간 필요</li> <li>-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년, 한부모·1인 가구 등) 위한 특화 프로그램 필요</li> </ul>
3. 홍보 부족 (총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NS, 광고, 안내 부족으로 복지관 존재 및 프로그램 인지도가 낮음</li> <li>-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필요</li> </ul>
4. 주차 문제 (총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 공간 협소하여 이용 불편</li> </ul>
5. 시설 개선 요청 (총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화장실, 샤워실 확장 및 보수 필요</li> <li>- 복도 바닥 및 환경 정비 요청</li> <li>- 커뮤니티 공간 마련 필요</li> </ul>
6. 복지사·강사 관련 (총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 친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감사)</li> <li>- 강사 수준 향상 필요 의견 있음</li> </ul>
7. 커뮤니티·교류 활성화 (총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교류 공간 마련</li> <li>- 외로움 해소, 주민 간 친목 프로그램 희망</li> <l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들이 프로그램</li> </ul>
8. 이용료 및 지원 문제 (총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 필요</li> <li>- 저렴한 수강료 지원 요청</li> <li>-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 확대</li> </ul>
9. 긍정적·감사의 의견 (총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에 만족, 감사 표현</li> <li>- “지금처럼만 해도 좋다” 는 의견 다수</li> </ul>
10. 기타 (소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 및 노래교실 기계 개선 요청 (2건)</li> <li>- 짜장데이 행사 확대 (1건)</li> <li>-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 (1건)</li> <li>- 쓰레기 문제 및 주변 환경 청결 (2건)</li> <li>- 복지 제도·서비스의 전문적 상담 및 원활한 지급 (2건)</li> </ul>

## 2. 질적분석 \_ FGI 그룹면담

본 조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맥락과 설문에 담기 어려운 세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그룹은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중장년 1인가구, 아동·청소년 보호자, 자원봉사/후원자로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주요 논의 주제 및 핵심 키워드를 그룹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복지관 서비스 이용 그룹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어르신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 면담결과, 참여자들은 선생님의 열정과 친절 및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성취감을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를 통해 혼자 은행 업무 보기 등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삶의 활력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운영시간을 짧게 하고 횟수를 늘려주어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수준별 반을 분리하는 등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복지관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전 세대를 포괄하는 종합 복지기관의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문항별 심층 질적 분석 결과

##### ①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만족 요인

##### ○ 타인권유 및 접근성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한 배경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긍정적인 권유’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녀나 지인의 추천으로 웰빙 댄스, 휴대폰 교육, 우쿨렐레 등 새로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지역사회 내 신뢰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딸이 인터넷을 보고 ‘엄마 복지관에 내가 신청해 줄게 다녀봐’ 그래서 2002년에 우리 손자를 낳았는데 그거를 업고 여기 와서 신청했어. 딸이 돈을 내고 ‘엄마 내가 돈 내고 신청해 줄게’ 그래서 다니게됐어요.”

##### ○ 선생님의 열정과 친절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사의 역량과 태도’였다. 어르신들은 강사들이 ‘친절하고 열성적으로 가르치려는 자세’에 대해 매우 만족했으며, 특히 휴대폰 교육이나 한글교육 처럼 어려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표했다. 강사의 긍정적 태도는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의 핵심요인으로 분석된다.

“선생님이 좀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좀 열성이세요. 내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금방 했던 것도 잘 못 하고 잘 잊어버리는데, 열심히 가르쳐줘요.”

“재미있고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셨는데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그래도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또 연주회(우쿨렐레)도 해요.”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라도 열심히 가르쳐주려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근데 어머니들은 한 100번은 들어야 뭐 한 두 개 머릿속에 들어오지. 들어와도 또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만 그걸 반복해서 계속하고 또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 ○ 새로운 배움과 성취감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활동 자체에서 ‘배움의 기쁨과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받침 글자 등 모르는 한글을 깨우치거나, 악기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성장 경험’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성취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더 오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식의 확장’ 기회를 얻는 것에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여기서 기타도 계속 몇 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아요.”

“영어도 abcd도 제대로 몰랐는데 abcd 소문자 대문자가 이렇게 외워져요. 이렇게 가면 이제 (영어로) 눈이 떠지는 거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이게 참 좋구나’ 하면서 영어를 진짜로 이제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중략) 이제 영어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

“나도 그냥 이제 70이지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늦게라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더 오고 싶고 즐거운 거야”

### ② 개인적 성장 및 삶의 긍정적 영향

#### ○ 생활 독립성 향상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게 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며, 한글과 휴대폰 사용법을 익힌 후 은행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모르는 걸 알아가니까 좀 훨씬 낫죠. 사진 찍는 방법이라든가…. (중략) 밑에서 위로 사람을 찍는다든지 뭐 아래로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이러니까….”

#### ○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배움을 통한 ‘자존감 회복’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글 학습 후 ‘눈이 떠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거나,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서적 만족과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복지관이 제공하는 역사 탐방 등 외부 활동 기회는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 문화적 경험’이 되었다.

“... (첫째가 집에서) 받아쓰기를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하니까 (자녀들이) ‘엄마 너무 잘해. 대단하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박사님이다. 엄마 검정고시 한 번 쳐서 고등학교도 가요’ 라고 하더라고”

③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 최적의 교육 운영 방식 구축

참여자들은 학습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강좌에서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춘 진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제에 집중된 커리큘럼 구성’을 희망했다. (예: 한글 교실에서 타 과목 내용 분리) 또한, 프로그램 주기가 길어 학습 내용을 잇기 쉬운 강좌의 경우 시간은 짧게 횡수는 늘려서 참여자의 학습 연속성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선생님 저기 폰 가르치는 선생님은 너무 좀 교육의 진도가 빨라요. 그 순서를 적어놔야 하는데 그냥 듣고 만 우리가 그걸 찾아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좀 바빠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데 적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2주일에 한 번 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조금 자주 하지만 좀 짧게 하면 더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쪽 해보니까 1년에 2개, 3개 이렇게 하니까 무리하더라고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 쾌적한 학습 환경 및 운영 기간 확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예: 강의실 에어컨)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편안함을 높이고, ‘외부 소음 및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에 학습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3개월간의 ‘겨울 방학 기간’을 조정하여 ‘연중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꾸준한 참여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다.

“에어컨이 낡아 에어컨을 하나 세우는 거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겨울 방학 때 3개월 늘잖아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2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④ 향후 복지서비스 사업의 발전 방향

○ 맞춤형 강좌 및 프로그램 다양화

참여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실력 차를 반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길 희망했다. 한글 교실의 ‘분반 운영’과 ‘영어 심화 과정 개설’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길 바라며 나아가, 장구, 색소폰 등 ‘새로운 취미 및 문화 강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 활동의 폭을 넓힐 것을 기대했다.

“반을 등급별로 3개로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다른 외국어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색소폰이 좀 비싸긴 하겠지만, 배우는 모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연주회도 하고.”

## 나. 지역주민(중장년 1인 가구) 그룹

중장년 1인 가구 그룹 면담결과, 참여자들의 삶은 ‘건강 악화 ⇒ 경제적 능력 상실 ⇒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인 악순환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제도적 기준에 묶여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의 현실을 호소하면서 단순한 생계 지원보다 스스로 일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다.

### ■ 문항별 심층 질적 분석 결과

#### ① 1인 가구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 ○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의 연쇄 작용

참여자들은 건강, 경제, 외로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음을 호소했다. 참석자 중 A 씨는 암 수술을 6차례 받았으며, 건강 때문에 매우 힘든 상태라고 밝히며, 아프다 보니 나가서 일할 수 없어 수입이 단절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각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병원비 혜택이나 검사 비용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점이 제도적 사각지대의 현실을 언급했다.

“혼자 사니까 혼자니까 외롭고 또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건강이... (중략) 저는 암으로 6번을 수술했고, 앞으로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다 있어요”

“아프다 보니까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해서 수입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 일을 못 하니까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보기에겐 멀쩡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가서 일해서 수입이 있다면 충당이 되는데 그러면 외로움도 좀 시간이 또 줄어들 것이고 하는데 이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그런 외로움이 생겼어요”

##### ○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편함 (난감한 상황)

생명에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작은 사고(예: 거울 동안 양손을 번갈아 다쳐 칼질이나 식사 준비 불가)로 인해 일상생활의 70~80%를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상당히 난감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소한 일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그냥 아주 사소한 건데요. 지난 이번 겨울 동안에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은 어떻게 생활하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오른손을 다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지장이 오는 것은 전혀 아닌데 그냥 일상생활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70-80%를 못 하게 되니까 상당히 난감해지더라고요.”

## ②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 ○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

참석자들은 몸이 나아지면 당장이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며, 도움을 받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어서 자립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공공 일자리의 자격 요건 문제로 좌절된 경험을 언급하며, 복지관이 기준 없이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창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장년층은 ‘고급 인력’이므로, 이들에게는 ‘물고기’가 아닌 ‘뉘싯대’ (일할 기회)가 필요하며, 복지관이 협동조합 등 사회 활동을 만들고 정보 제공 및 주선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직접적인 생계 지원으로는 반찬값 정도의 소액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일을 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벌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원하지, 꼭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아”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뉘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 ○ 건강 및 정서적 지원

운동 지원 프로그램 (산책 외의 운동)이나 현재 받는 척주 교정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설을 희망했다. 또한,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한 가족처럼’ 모여 웃고 말씀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이라고 보았다.

“운동, 헬스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등산이 아니라도 뭐 산책이라든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

“1인 가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모여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한 가족은 아니지만, 큰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게 내가 최상책이라고 생각해요”

## ③ 여가 활용 및 모임/활동에 대한 필요성

### ○ 여가 활동의 고립화

대부분 참여자는 집에서 TV, 유튜브 등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활동성이 낮은 패턴을 보였으며, 모임은 고립에 적응하는 것을 막는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아파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며, 할 일이 없으니까 TV만 보고 그러다 새벽에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

“저는 일할 때 하고 일 안 할 때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프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다 보면 새벽 세 시예요. 새벽 4시에 자면 아침 10시쯤 일어나게 되고”

“특별한 여가 시간... 뭐 하는 거... 거의 없어요.”

#### ○ 모임의 절박한 필요성 (고립 방지)

모임은 당연히 필요하며, 특히 혼자 살면서 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립’이며, 고립에 적응하게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복지관이 이 고립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친구를 만들고, 함께 운동하거나 재능 기부 등 사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혼자서 살면서 특히 어떤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고립이거든요. 고립에 적응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집안에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립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들은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역할 부여

참석자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자존감을 확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관 내에 재능 기부/자원 시스템을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면 참여자들이 ‘나는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자원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요청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자존감을 확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활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은 어려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거든요”

#### ④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의 도움 방식

##### ○ 자력 해결 및 요청의 망설임

참석자들은 사소한 불편함은 ‘참고 내가 버텨내고 이겨낸다’ 라고 응답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조차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자기 의존 성향을 보였다. 사소한 일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너무 혼자 있어서 불편해지고 항상 참고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어렵다면은 제가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테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온다면은 또 그런 거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기적 안전망 요청

주변에서 사망 후 한 달, 두 달 동안 방치되는 고독사 사례를 목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기적인 연락 체계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늘 정기적으로 저와 연락이 되는 곳은 있었으면...  
연락이 안 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뒤통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돌아가셔서 그대로 방치된 적이 많았고 냄새나기까지 그렇게 한  
적도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를 주는게 좋지.”

⑤ 관악구와 복지관의 우선 서비스

○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 조정

청년 지원은 많은 반면, 40~60대 중장년층은 노령 연금을 받기 전까지 지원이 없어 소득이 없거나 아픈 이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년층을 ‘고급 인력’으로 보고, 취업 나이를 가능한 한 늘려야 한다는 정책적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 생각인데 정책적으로 아주 거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늘었으니까 정년 나이도 그에 걸 맞춰서 상향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충분한데 이것을 어떤 나이 제한으로 사전에 줄여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 복지관의 핵심 역할 (자립 지원)

단순 모임이 아니라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수입원이 있는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전화 및 방문 확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

다.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룹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룹의 면담 분석 결과, 보호자들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관계적 소통 단절과 자녀의 미래 진로/학습에 대한 불안정성을 꼽았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자녀의 신체적 자신감 향상과 문화적 경험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문항별 심층 질적 분석 결과

①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

### ○ 생활 습관 지도와 관계 악화의 악순환

아침 기상이나 숙제 이행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과정이 매일 아침 보호자와 자녀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보호자는 이로 인한 기분 나쁨이 하루 종일 남아 있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서적 피로도가 높다고 호소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엄마 말 시키지 말라” 고 하는 등 정서적 단절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이제 그것을 깨워야 하니까 아침부터 이제 관계가 너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서로 기분 나쁘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이하고의 이런 관계적인 면이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요. 아침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엄마한테 짜증을 내니 그랬더니, 엄마 말 시키지 말래요.”

### ○ 진로 및 학습에 대한 불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자녀가 진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의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나, 형들의 미디어(유튜브) 노출로 인한 초등학생답지 않은 생각 및 생활 방식 지도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고1 아이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 증인데 많은 정보를 주고 좀 뭐 해봐라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형들이 접하는 그런 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 좀 초등학생답지 않은 그런 좀 생활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것과 또 할 수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 ②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긍정적인 변화

#### ○ 신체 활동을 통한 자신감 향상

클라이밍이 포함된 신체 활동 프로그램(예: 위아 당당)을 통해 자녀가 평소 무서워하던 활동(자전거 배우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시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 보호자는 자녀가 성격이 더 밝아지고,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해졌으며, 주도성이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클라이밍이 사실 접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건 데 마침 있고 그래도 좋아하고... (중략) 애가 거기 올라가는 것만 봐도 이제 무서웠나 봐요. 겁이 나나 봐요. 근데 애가 이게 시도가 된 거예요”

“한 발짝씩 그래도 좀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좋았던 것 같고”

“아이가 솔직하고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그래요.”

○ 문화적 경험 격차 해소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워터파크, 요리 활동, 여행 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점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아무래도 집에서 다 일일이 그런 걸 챙겨주기가 어려운데... (중략) 클라이밍을 사실 부모가 직접 1대 1로 뭔가를 하고 아니면은 사실 경험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워터파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데 가서 잘 놀고 오니까 좋아요.”

○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1년 단위로 꾸준히 진행되는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만족했다.

“일시적으로 몇 번 사실 모이는 게 아니라 딱 1년 계획에 딱 한 번에 모여서 쪽 끌고 가는 게 좋은 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가니까 애들도 친해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③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 멘토링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대학생 멘토들이 학기 스케줄이나 방학 등으로 자주 바뀌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이야기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멘토를 관계적인 대상으로 여기므로, 멘토의 잦은 변경은 활동의 흐름을 끊고 아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도 한 분이 오랫동안 꾸준히 멘토링 해 달라고 요청했다.

“멘토가 자주 바뀌면 애도 이제 안 다니게 끔도 되고 또 하다가 흐름이 끊기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한 분만 계속 오랫동안 멘토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④ 자녀의 성장 및 양육을 위해 새롭게 개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 보호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픽업 품앗이)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들 간 서로 대신 데려다줄 수 있는 품앗이 네트워크를 복지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이 품앗이 활동을 자원봉사 점수나 인센티브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 아이들은 데려다주고 가고 그래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보호자들이 일하니까 시간대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대신 (픽업) 해줘도 될 것 같아요.”

○ 부모-자녀 공동 활동

집에서는 어색하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체험 활동 (예: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관악산/한강 나들이)을 개설하여,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동과 나와의 들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뭔가 하는 프로그램.”  
“가까운데 관악산도 있고, 캠퍼스 좋은 대학교들도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산책 등도 좋을 것 같아요”

⑤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해 복지관이 더욱 강화해야 할 역할

복지관이 아동의 놀 권리, 학습권, 안전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권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방향성에 대해 지지하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놀이 및 문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잘 놀 수 있게”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이 지역 주민(보호자)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픽업 폼앗이와 같은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라. 자원봉사 및 후원자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면담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활동 동기는 ‘개인의 전문성 개발/사회적 인정’ 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에 기반하며, 가장 큰 만족은 ‘대상자와의 깊은 관계적 신뢰 형성’ 에서 비롯됨으로 나타났다.

■ 문항별 심층 질적 분석 결과

① 자원봉사/후원 시작 계기 및 보람/만족스러운 부분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전공자의 경우 복지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자 봉사를 찾은 경우와 지역주민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봉사를 시작한 경우로 나타났다.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만족감은 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뿌듯함, 복지관을 매개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즐거움과 배움으로 나타났다.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있고 이제 관련 이론을 넘어서 조금 직접적으로 복지 관련 현장에 체험을 해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봉사를 찾다가 여기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오게 됐는데”  
“복지관을 통해서 좋은 분들과 교류하고 저에게도 사실 되게 큰 즐거움이고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작은 그런 거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② 자원봉사/후원 활동의 지역사회 긍정적 영향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

복지관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결자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그 매개자가 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복지관이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어주는 역할... (중략) 저희가 어린이날 축제를 준비할 때 커피 찌꺼기 자원이 좀 필요해서 이제 지역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 취지에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중략] 복지관이 지역 주민을 연결해 주는 힘이 있구나”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본다... (중략) 복지관의 요리 활동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③ 자원봉사/후원 활동 환경 개선 필요사항 및 소통 강화 노력

○ 활동 환경 개선 요구 (정보, 교육, 시스템)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말실수로 할머니와 사는 아동에게 비의도적인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었다. 최소한의 정보는 봉사자가 실수로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할머니랑 사는데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갖다 줘’라고... 최소한의 정보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활동 일지 및 평가 시스템

봉사 후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단순히 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개선점 등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자기 점검 및 성찰 기회 제공이 긍정적 보상임을 시사한다. 다른 기관에서 경험한 ‘중간 평가’ 제도를 제안하며, 봉사자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봉사자의 개선할 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온라인 채널 활용 강화

복지관의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이 있는 것은 알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복지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복지관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므로, 복지관이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지역 주민과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복지관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인데 복지관 채널이 있는 건 알지만 활동을 안 하고 있어 아쉬워요. 복지관의 온라인 채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지역 주민과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 ④ 복지관의 자원봉사 및 후원 분야 역할 강화 방향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단순히 인력 보충을 넘어 지역사회 이슈 해결의 파트너로 함께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이슈나 세대 간의 교류와 같은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늘려주면, 봉사자가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동 안전권 주제의 축제 부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봉사자 스스로 안전권에 대해 정보를 알아가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함께 해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확보하려면,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며 유대가 쌓이고, 그 결과 자원봉사자가 후원자가 되는 루트가 가장 보편적이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았다. 또한,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위한 활동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봉사자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후원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지역사회 이슈라든지 세대 간의 교류라든지...(중략) 그런 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늘려주시면은 봉사자가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3. 결과 및 제언

#### 가. 결과 요약

##### 1) 지역사회 인구 특성

2025년 3/4분기 기준 관악구 총 인구는 497,998명으로, 세대당 인구수는 1.66명으로 서울시 평균(2.07)대비 낮으며, 총 세대수 288,964세대 중 1인 가구가 180,633세대로 62.6%를 차지하며, 이 중 19세~39세 청년층이 63.6%로 집중되어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92,116명으로 고령 사회(18.50%)에 해당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신림동(85.6%) 등은 1인 가구 비중이 70%를 넘으며 청년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노년 1인 가구는 난곡동, 삼성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현황은 난곡동, 은천동 등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 일반현황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421명 중 여성이 306명(72.7%)으로 남성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연령 분포에서는 20대 이하가 6%, 30-50대가 34.7%,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의 59.4%를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의 분포는 행운동 134명(31.8%), 청림동 109명(25.9%), 성현동 74명(17.6%) 남현동 50명(11.9%) 순이며, 관악구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거주자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거주(54.9%)가 가장 많았고, 주거 현황은 자가 응답(49.4%)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 구성은 부부+자녀 가구(35.2%)와 1인 가구(32.5%) 현황이 높게 나타났으며, 3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0.8%는 보호 구분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보호 대상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24.7%), 차상위계층(4.5%)로 나타났다.

##### 3) 복지관 인지도 분석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주민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9%가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었으며, 48.7%는 이름만 알거나 정보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5%는 복지관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인지 경로는 ‘이웃/친구/가족 추천’이 36.8%로 가장 높았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된 경우가 22.6%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 신문이나 SNS 등 공식적인 홍보 매체를 통한 인지 경로는 2.9%에 불과했다.

복지관 이용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4%가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40.9%는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복지관 이용 이유로는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가 62.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관리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13.7%였다. 미이용 이유로는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가 45.7%로 가장 많았고,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16.8%),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13.3%)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에서는 ‘여가/문화/교육 지원’이 25.6%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18.5%), ‘취약계층 특별 지원’(14.9%)이 뒤를 이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비수급자는 ‘여가/문화/교육 지원’을 27.7%로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수급자는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25.9%)과 ‘취약계층 특별 지원’(17.9%)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4) 영역별 복지 욕구 분석

##### ○ 복지 욕구\_ 건강 및 의료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9%가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신체활동의 어려움’ (15.8%)과 ‘정신건강 문제’ (12.8%)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4%였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은 ‘병원비 부담’ (20.9%)이 가장 컸고, ‘병원가기 어려움’ (15.8%), ‘정보 부족’ (12.8%)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만성 질환 및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는 ‘운동 프로그램’ (33.4%)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 지원’ (20.1%)과 ‘질병 관련 교육’ (17.1%)이 뒤를 이었다. 정신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움으로는 ‘상담’ (31.8%)과 ‘집단 프로그램’ (30.3%)이 가장 많았다.

##### ○ 복지 욕구\_ 경제, 주거, 일자리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20.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의료비/간병비 부담’ (13.5%)과 ‘식비 등 생활비 부족’ (13.2%)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관련 필요 도움으로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25.0%)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직업 훈련 및 교육’ (16.0%)과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15.0%)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33.5%)과 ‘보통’ (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46.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 응답은 14.8%였다. 주거환경 불만족 이유로는 ‘집이 낡고 오래됨’ (33.5%)이 가장 많았고, ‘집 공간이 좁음’ (25.8%), ‘주거비 부담’ (20.6%)이 뒤를 이었다. 주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28.8%)이었으며, ‘주거환경 개선’ (22.2%)과 ‘주거비 지원’ (21.7%)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의 필요성은 높았으나, 청림동과 성현동은 주거환경 개선에, 행운동과 남현동은 주거비 지원확대에 더 높은 필요성이 나타났다.

##### ○ 복지 욕구\_ 사회관계 및 여가 / 문화

최근 한 달 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7%가 ‘가끔’, ‘자주’, 또는 ‘거의 매일’ 외로움을 느꼈으며, 이 중 ‘가끔’ 느낀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 내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정보 부족’ (2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적 부담’ (14.5%), ‘시간 부족’ (10.7%)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급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비수급자는 ‘정보 부족’ (24%)과 ‘시간 부족’ (13.7%)을, 수급자는 ‘경제적 부담’ (20.5%)과 ‘관계 맺기 어려움’ (13%)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 (39.6%)이 가장 높았으며,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0.9%)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36.8%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편이다’ 와

‘매우 부족하다’를 합한 ‘부족하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여가 및 문화 활동 관심 분야 조사 결과, ‘운동’ (36.2%)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취미 활동’ (16.3%), ‘여행’ (15.7%)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35.4%가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28.3%)이 가장 많았고, ‘정보 부족’ (17.8%), ‘시간 부족’ (15.7%) 순이었다.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32.8%)이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29.6%)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 ○ 복지욕구 - 돌봄 및 교육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30.9%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응답자 (157명) 중 가장 많은 34.4%가 ‘학령기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거동 불편 노인’이 18.5%, ‘영유아 자녀’가 12.1%를 나타냈다. 돌봄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24.6%)이 가장 높았고, ‘몸이 피로함’ (22.0%), ‘정신적 스트레스’ (21.6%)가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 (25.2%)이 가장 높았으며, ‘긴급 돌봄 서비스’ (17.8%)와 ‘돌봄 인력 지원’ (16.5%)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교육 관련 어려움은 ‘자녀 교육비 부담’ (19.8%)이었고, ‘정보화 교육 부족’ (18.1%)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프로그램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27.6%)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24.6%)을 가장 필요로 했다.

## 5)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를 합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9.6%, ‘보통이다’가 39.4%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만족하는 점은 ‘편리한 교통’ (27.7%)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편의시설’ (15.7%), ‘깨끗한 환경’ (1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 (12.5%)과 ‘주차 공간 부족’ (11.9%)이었으며,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10.9%)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1%였고, 63.9%는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주민 모임을 통해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문제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16.7%)가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15.9%)와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14.2%)이 뒤를 이었다.

## 6) 심층 면접(FGI) 결과 분석

### ○ 복지관 서비스 이용 그룹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들의 일상 활력 증진 및 자발적 학습 의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강사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 및 배움을 통한 성취감을 핵심 만족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글 및 휴대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생활 독립성 강화와 긍정적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교육 운영 방식 구축과 몰입도를 저해하는 환경요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새로운 취미 강좌

개설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수영장 재개방 및 정기적인 야외 활동 확대를 통해 신체적·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증진하는 활기찬 여가 복지 공간으로의 발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 ○ 중장년 1인 가구 그룹

중장년 1인 가구 참여자들의 삶은 ‘건강 악화 ⇒경제적 능력 상실⇒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인 악순환에 놓여 있었으며, 단순 생계 지원금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고, 이는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립된 채 소득 불안정을 겪는 계층의 자존감과 경제적 자립 욕구를 반영한다. 이들은 고립에 적응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모임활동’ 및 ‘정기적인 연락 체계’ 을 가장 중요하게 요청했다.

#### ○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룹

아동·청소년보호자들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관계적 소통 단절과 자녀의 미래 진로/학습에 대한 불안정성을 꼽았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자녀의 신체적 자신감 향상과 문화적 경험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향후 복지관의 효율성과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두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 보호자 간 픽업 품앗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활동에 자원봉사 접수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프로그램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것, 둘째, 부모-자녀 공동 활동 프로그램(운동, 체험 등) 개설을 통해 가정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 개선 및 정서적 지원제공의 경험을 제안했다.

#### ○ 자원봉사 및 후원자 그룹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면담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활동 동기는 ‘개인의 전문성 개발/사회적 인정’ 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에 기반하며, 가장 큰 만족은 ‘대상자와의 깊은 관계적 신뢰 형성’ 에서 비롯됨이 확인되었다. 자원봉사와 후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단순 인력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로 보고,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봉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려면, 지역사회 이슈 해결이나 세대 간 교류와 같은 지역 중심의 활동 주제를 늘려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후원자 확보를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도움을 받는 지역 주민들과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꾸준히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봉사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오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나. 복지관 사업 및 운영방안 제언

### 1) 거시적 방향성

#### ① 지역 특화 및 선제적 복지 모델 구축: ‘고립 위험군 중심의 세대별 통합 돌봄 체계’ 확립

관악구의 1인 가구(62.6%) 집중 및 고령화 가속화(18.50%)라는 지역 특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높은 외로움과 고립감(50.7%) 경험이 확인된 만큼, 건강, 경제, 관

계망 단절이라는 복합적인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립 위험군 중심의 통합돌봄 및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고립과 돌봄의 문제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노년·취약 청년층 등 세대별로 다른 양상과 욕구를 보이고 있어,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세대별 통합돌봄 접근이 요구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건강·정서·일상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방문 안부 확인, 식사 지원, 사회참여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관은 사례관리의 총괄 조정자로서 의료기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중복과 단절을 예방하고, 분절 없는 세대별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해야 한다.

### ② 주민 주도 및 자조 역량 강화: 지역밀착형 거점공간 기반한 커뮤니티 구축

복지관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증진하는 자조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외로움 해소를 위한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39.6% 요구)’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리더 양성 등)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자조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행운동과 남현동 지역 주민의 경우 거리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접근성이 낮은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거점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포괄적 참여 기회 증진: 학습·건강 통합 지원 거점

주민들의 높은 욕구로 나타난 여가·문화·교육 지원(25.6%)과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인 여가·문화 활동(36.1%)에 대응하여, 복지관의 기능을 학습·건강 통합 지원 거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요구(24.6%)를 반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학습 참여와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교육·취미 활동과 정기적인 외부 활동을 연계하여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증진하는 통합적 참여 구조를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IoT(Internet of Things) 기기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소외로 인한 불편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자립적 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 영역에서는 혈압·혈당 등 기본 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소규모 운동 모임과 만성질환 관리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④ 지역사회 연대 강화: ‘협력적 문제 해결 파트너십’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자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 연대하고, 세대 간 교류와 지역사회 이슈 해결 중심의 활동 주제를 확대하여 봉사자의 책임감과 활동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지원단(이웃살피미)을 중심으로, 일상 속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발견, 관계 형성을 수행하는 주민 주도형 돌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관은 지역 내 학교, 상점, 주민 모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긴급 지원을 연계하는 협력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민·관 자원개발을 체계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협력적 연대 구조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미시적 실천 방안: 영역별 구체적 사업 실행

### ① 세대별 통합돌봄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통합돌봄을 기반으로 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복지관은 지역 내 돌봄 욕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는 핵심 수행 주체로서, 수급자의 우선 욕구인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에 집중한다. 특히 낮은 소득과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 위기 청소년 발굴 및 관계 개선 지원: 복지관은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청소년기관·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부모-자녀 공동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내 소통 단절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지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적 돌봄을 강화한다.

### ② 자조모임 활성화 및 고립 예방 시스템 구축

- 1인 가구 자조 모임 집중 지원: 1인 가구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운영 규칙과 안부 확인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연락 체계’ 기능을 내재화한다.
- 관심사 기반 소모임 리더 발굴: 외로움 해소를 위해 높은 요구를 보인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을 발굴하고, 이를 이끌어갈 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조적 관계망을 확산한다.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동 아웃리치 운영: 복지관 미이용 사유 1위인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지 경로 중 가장 효과적인 ‘이웃·친구 추천’의 강점을 활용한다. 복지관 직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복지관 사업과 서비스를 직접 안내하고 연계한다. 특히 주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일상 속 홍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하고, 직원의 현장 상담과 연계를 통해 복지관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

### ③ 교육 운영 질적 향상 및 평생 학습 지원

- 학습자 맞춤형 운영 시스템 도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진도 조절’을 강사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한글 교실의 ‘수준별 분반 운영’을 통해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디지털·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주민 수요가 높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보 격차와 학습 욕구에 대응한다. 아울러 취미·교양·자기계발 중심의 유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건강 교육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일상 속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 운동·영양 관리, 정신건강 등 건강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실천형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의 건강 인식과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환경 및 운영 기간 개선: 노후 시설(에어컨)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연중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④ 통합돌봄과 지역밀착형 복지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자원연계 강화

- 봉사자-주민 유대 강화 기반 활동 설계: 자원봉사자의 주요 만족 요인인 ‘대상자와의 관계적 신뢰 형성’을 강화하기 위해, 봉사자가 지역 주민과 직접적·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다. 특히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지원단(이웃살피미)을 중심으로 장기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일상 속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발견, 관계 형성 활동을 통해 지역밀착형 통합돌봄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 지역 이슈 해결 참여 확대 및 자원 확보: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지역 환경 개선 활동 등 지역 중심 활동 주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통합돌봄 및 지역밀착형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후원 연계를 체계화하고, 주민지원단과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돌봄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연계한다.



## IV

# 아동·청소년 조사 및 분석결과

1. 양적조사

2. 결론 및 제언



## IV. 아동청소년 조사 및 분석결과

### 1. 양적조사

#### 가. 응답자 일반현황

[표 46-1] 응답자 \_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79	52.0
	남성	73	48.0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전체 152명 중 여성이 79명(52.0%), 남성이 73명(48.0%)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4.0%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표 46-2] 응답자 \_ 학년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2	14.5
	초등학교 5학년	19	12.5
	초등학교 6학년	13	8.6
	중학교 1학년	19	12.5
	중학교 2학년	15	9.9
	중학교 3학년	14	9.2
	고등학교 1학년	14	9.2
	고등학교 2학년	11	7.2
	고등학교 3학년	8	5.3
	기타	17	11.2

응답자의 학년 분포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31.6%, 고등학생 21.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학령기에 걸쳐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기타(11.2%) 응답은 초등학생 저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표 46-3] 응답자 \_ 복지관 이용 기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처음 복지관을 이용했던 학년은 언제였나요?	초등학교 1학년	12	8.3
	초등학교 2학년	15	10.4
	초등학교 3학년	15	10.4
	초등학교 4학년	9	6.3
	초등학교 5학년	14	9.7
	초등학교 6학년	10	6.9
	중학교 1학년	8	5.6
	중학교 2학년	6	4.2
	중학교 3학년	4	2.8
	고등학교 1학년	1	0.7
	고등학교 2학년	0	0
	고등학교 3학년	0	0
	이용한 적 없음	50	34.7

응답자의 복지관 최초 이용 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144명 중 34.7%에 해당하는 50명은 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처음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1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최초 이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복지관의 주된 이용자 유입이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 시기에 신규 이용자로 유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6-4] 응답자 \_ 거주 지역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거주 지역	청림동	37	24.7
	성현동	17	11.3
	남현동	2	1.3
	행운동	25	16.7
	기타	53	35.3
	모르겠다	16	10.7

조사 대상자의 거주 지역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53명(35.3%), 청림동이 37명(24.7%), 행운동이 25명(16.7%) 순이었으며, 남현동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2명(1.3%)으로 나타났다.

[표 47] 한 달간 받는 용돈

(단위 : 명, %, 원)

구분		빈도	%
한 달 간 받는 용돈은 얼마인가요?	0원	53	37.1
	1,000원 이상 ~ 20,000원 이하	14	9.8
	20,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14	9.8
	30,000원 초과 ~ 50,000원 이하	22	15.4
	5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	21	14.7
	100,000원 초과	19	13.3
합계		143	100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8,846	64438	0	350,000

응답자가 한 달간 받는 용돈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용돈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명(3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다. 용돈을 받는 경우, 30,000원 초과 ~ 50,000원 이하(15.4%)와 50,000원 초과 ~ 100,000원 이하(14.7%) 구간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였다. 전체 용돈의 평균은 48,846원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매우 커 응답자 간의 받는 용돈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복지관 이용경험 및 인식

[표 48]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참여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지금까지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현재 참여하고 있다.	61	40.1
	참여하다가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36	23.7
	현재까지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다.	55	36.2
합계		152	100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가 40.1%로 가장 많았고,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36.2%), ‘참여하다가 현재는 참여하지 않는다’ (23.7%)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과거 또는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수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9]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SD
복지관에 오면 신나고 재미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1	0.7
	그렇지 않다	1	1.6		
	보통이다	7	11.5		
	그렇다	17	27.9		
	아주 그렇다	36	59.0		
집(학교)에서 가까워서 오기 편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	5	8.2	4.0	0.8
	그렇지 않다	2	3.3		
	보통이다	13	21.3		
	그렇다	13	21.3		
	아주 그렇다	28	45.9		
선생님이 친절하고 잘 도와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6	0.5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3	4.9		
	그렇다	8	13.1		
	아주 그렇다	50	82.0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5	8.3	4.4	0.7
	그렇지 않다	3	5.0		
	보통이다	13	21.7		
	그렇다	9	15.0		
	아주 그렇다	30	50.0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7	0.5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3	4.9		
	그렇다	14	23.0		
	아주 그렇다	44	72.1		

공부나 숙제를 도와줘서 도움이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	10	16.9	3.8	1.0
	그렇지 않다	7	11.9		
	보통이다	12	20.3		
	그렇다	10	16.9		
	아주 그렇다	20	33.9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1	1.7	4.3	0.8
	그렇지 않다	0	0		
	보통이다	5	8.3		
	그렇다	11	18.3		
	아주 그렇다	43	71.7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2	3.4	4.4	0.7
	그렇지 않다	2	3.4		
	보통이다	6	10.2		
	그렇다	12	20.3		
	아주 그렇다	37	62.7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	N	평균		표준편차	
	61	4.3		0.7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유**에 대한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4.3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 (4.7점), ‘선생님이 친절하고 잘 도와준다’ (4.6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4.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의 아동·청소년 사업이 참여자의 흥미에 맞춰 다양한 활동과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4점)는 항목은 복지관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는 결과로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학업 관련 도움’ (3.8점)은 상대적으로 낮아, 학습 지원보다는 활동의 즐거움과 관계 형성이 주요 참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복지관은 아동·청소년에게 일상 속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0] 복지관 만족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단위 : 명, 점)	
				최솟값	최대값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61	94.52	9.294	50	100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4.52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최솟값은 50점, 최댓값은 1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9.29)가 낮은 편이어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대부분의 응답이 90점대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복지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당신은 복지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44	16.7
	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78	29.7
	재밌고 신나는 곳이다.	41	15.6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다.	32	12.2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35	13.3
	모르겠다.	29	11.0
	기타	4	1.5
합계		263	100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여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밌고 신나는 곳’ (15.6%)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13.3%)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 (16.7%)이나 ‘모르겠다’ (11.0%)는 응답도 적지 않아,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19	17.8
	갈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어서	34	31.8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6	15.0
	나와 상관이 없는 곳 같아서	12	11.2
	집과 멀어서	13	12.1
	기타	13	12.1
합계		107	100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갈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어서’가 31.8%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17.8%),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5.0%), ‘집과 멀어서’ (12.1%), ‘나와 상관이 없는 곳 같아서’ (11.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시간적 제약과 정보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여가·놀이

[표 53] 평일 방과후 주로 하는 활동 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평일 방과 후 주로 하는 1순위, 2순위 활동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TV 시청	45	29.8	24	16.0
	독서하기	1	0.7	4	2.7
	게임(PC, 스마트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16	10.6	24	16.0
	숙제	11	7.3	19	12.7
	동아리 활동	4	2.6	2	1.3
	학교 방과후 참여하기	5	3.3	8	5.3
	학원·과외	24	15.9	20	13.3
	종교활동	1	0.7	0	0
	집안일 돕기	0	0	0	0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25	16.6	15	10.0
	친구랑 놀기	9	6.0	15	10.0
	신체활동·운동하기	4	2.6	12	8.0
	아르바이트	1	0.7	0	0
	낮잠	3	2.0	5	3.3
기타	2	1.3	2	1.3	
합계	151	100	150	100	

평일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 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로 미디어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학업 관련 활동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활동으로 ‘스마트폰·TV 시청’ (29.8%)과 ‘게임’ (10.6%)을 합한 미디어 활용이 40.4%에 달했으며, ‘학원과외’ (15.9%)와 ‘숙제’ (7.3%)를 합한 학업 관련 활동도 23.2%를 차지했다. 그 외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16.6%)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독서’ (0.7%)와 ‘신체활동·운동하기’ (2.6%) 등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평일 방과 후 시간은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당 시간을 학업의 연장선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일 2순위 활동 역시 미디어 이용과 학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이어졌다. ‘스마트폰·TV 시청’ 과 ‘게임’ 이 각각 1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두 항목을 합한 미디어 활용 비중은 32.0%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학원과외’ (13.3%)와 ‘숙제’ (12.7%)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1순위 활동 외의 여가 시간 역시 새로운 활동으로 확장되기보다, 기존의 미디어 이용 및 학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4] 주말에 주로 하는 활동 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주말에 주로 하는 1순위, 2순위 활동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TV 시청	51	33.6	31	20.5
	독서하기	3	2.0	3	2.0
	게임(PC, 스마트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37	24.3	32	21.2
	숙제	8	5.3	26	17.2
	동아리 활동	0	0	0	0
	학교 방과후 참여하기	0	0	0	0
	학원·과외	7	4.6	2	1.3
	종교활동	3	2.0	5	3.3
	집안일 돕기	0	0	6	4.0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1	0.7	2	1.3
	친구랑 놀기	23	15.1	13	8.6
	신체활동·운동하기	5	3.3	14	9.3
	아르바이트	1	0.7	0	0
	낮잠	7	4.6	12	7.9
기타	6	3.9	5	3.3	
합계	152	100	151	100	

주말에 주로 하는 활동 1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미디어 의존도가 평일보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순위 활동으로 ‘스마트폰·TV 시청’이 33.6%, ‘게임’이 24.3%를 차지해, 두 활동을 합한 비중이 과반이 넘는 57.9%에 달했다. 평일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랑 놀기’가 15.1%로 크게 증가하여 미디어 활동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말이 아동·청소년에게 미디어 외에, 또래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보여준다.

주말 2순위 활동에서도 미디어 이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21.2%)과 ‘스마트폰·TV 시청’(20.5%)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으며, ‘숙제’가 17.2%로 그 뒤를 이었다. 평일 방과 후 2순위 활동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숙제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학업 부담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신체활동’(9.3%)과 ‘친구와 놀기’(8.6%)도 일부 나타나 여가와 학업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5] 방학에 주로 하는 활동

구분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방학에 주로 하는 주로 하는 1순위, 2순위 활동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TV 시청	45	29.6	28	18.5
	독서하기	2	1.3	5	3.3
	게임(PC, 스마트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21	13.8	18	11.9
	숙제	17	11.2	15	9.9
	동아리 활동	0	0	0	0
	학교 방과후 참여하기	5	3.3	3	2.0
	학원·과외	8	5.3	9	6.0
	종교활동	0	0	0	0
	집안일 돕기	2	1.3	4	2.6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16	10.5	12	7.9
	친구랑 놀기	18	11.8	26	17.2
	신체활동·운동하기	7	4.6	14	9.3
	아르바이트	1	0.7	1	0.7
	낮잠	5	3.3	14	9.3
기타	5	3.3	2	1.3	
합계		152	100	151	100

방학에 주로 하는 활동 순위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 활동으로 방학 기간 역시 미디어 중심의 여가 패턴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순위로 ‘스마트폰·TV 시청’ (29.6%)과 ‘게임’ (13.8%) 등 미디어 관련 활동이 총 43.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친구랑 놀기’ (11.8%), ‘숙제’ (11.2%),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10.5%)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학이 새로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 외 뚜렷한 대안 활동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학 중 2순위 활동에서는 1순위와 비교해 또래 관계 및 활동적인 여가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TV 시청’ 이 18.5%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친구랑 놀기’ 가 17.2%로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한 ‘게임’ (11.9%) 다음으로 ‘신체활동’ (9.3%)과 ‘낮잠’ (9.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에 또래와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6] 최근 1년간 놀이·여가시간의 충분성

구분		(단위 : 명, %, 점)	
		빈도	%
최근 1년간 놀이·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11	7.3
	그렇지 않다	23	15.2
	보통이다	37	24.5
	그렇다	43	28.5
	매우 그렇다	37	24.5
합계		151	100
N	평균	표준편차	
151	3.48	1.22	

최근 1년간 놀이·여가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은 3.48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 간의 응답 차이가 커, 일부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반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집단도(22.5%)로 적지 않았다. 이는 놀이·여가시간 인식에서 개인차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57] 놀이·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놀이·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 1순위, 2순위는 무엇인가요?	보호자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9	15.3	8	16.0
	친구가 없어서	5	8.5	4	8.0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8	13.6	8	16.0
	집안일을 해야해서	2	3.4	6	12.0
	용돈이 부족해서	6	10.2	9	18.0
	기타	1	1.7	6	12.0
	공부, 학원, 숙제 등 시간이 없어서	28	47.5	9	18.0
합계	59	100	50	100	

놀이·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공부·학원·숙제 등 시간이 없어서’ (47.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자의 허락 제한’ (15.3%)과 ‘놀 수 있는 공간 부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평일 방과 후와 주말 활동의 2순위에서도 학업(숙제·학원) 응답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놀이·여가 시간이 부족한 주된 원인은 학업 부담**임을 알 수 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 2순위로는 ‘공부·학원·숙제’ (18.0%)와 ‘용돈 부족’ (18.0%), ‘보호자의 허락 제한’ (16.0%), ‘공간 부족’ (16.0%) 등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뿐 아니라 용돈, 집안의 허락, 공간 문제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식생활

[표 58] 하루 세끼 식사 유무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소에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 편인가요?	거의 챙겨 먹지 못 한다	13	8.6
	자주 못 챙겨 먹는다	17	11.2
	가끔 못 챙겨 먹는다	39	25.7
	자주 챙겨 먹는다	32	21.1
	항상 챙겨 먹는다	51	33.6
합계	152	100	
N	평균	표준편차	
152	3.60	1.29	

평소 하루 세 끼 식사를 모두 챙겨 먹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은 3.6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항상 또는 자주 챙겨 먹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4.7%)을 차지했으나, **거의 또는 자주 챙겨 먹지 못한다는 응답(19.8%)**도 적지 않았다. 가끔 챙겨 먹지 못한다는 응답(25.7%)은 결식에 대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올바른 식습관은 성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생활 돌봄 프로그램과 건강식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표 59]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 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3	6.1
	보호자가 차려주지 않아서	1	2.0
	스스로 요리를 할 줄 몰라서	2	4.1
	먹지 않는게 익숙해져서	27	55.1
	기타	16	32.7
합계		49	100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먹지 않는 게 익숙해져서**’ 5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32.7%)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6.1%)가 뒤를 이었다. 습관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규칙적인 식사는 성장기 건강 발달에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표 60] 집에 음식이 없어 걱정된 경험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된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	52	34.2
	거의 없다	49	32.2
	가끔 있다	40	26.3
	자주 있다	8	5.3
	매우 자주 있다	3	2.0
합계		152	100
N	평균	표준편차	
152	2.09	0.99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 걱정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없었다’ (34.2%)와 ‘거의 없었다’ (32.2%)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가끔 있었다’ (26.3%) 또는 ‘자주·매우 자주 있었다’ (7.3%)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이 먹을 음식이 없어 걱정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성장기에 음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결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식사 지원과 관련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표 61] 평소 식사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평소에 식사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호자가 차려줌	116	49.4
	직접 조리	29	12.3
	인스턴트 식품	24	10.2
	배달 음식	21	8.9
	밖에서 먹음(외식)	16	6.8
	지역아동센터에서 등에서 먹음	28	11.9
	기타	1	0.4
합계		235	100

평소 식사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보호자가 차려준다’는 응답이 절반 가량(49.4%)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조리’ 하거나(12.3%), ‘지역아동센터’ (11.9%) 등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식생활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2] 인스턴트가 몸에 끼치는 영향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건강에 아주 나쁘다	37	24.3
	건강에 조금 나쁘다	72	47.4
	잘 모르겠다	31	20.4
	건강에 조금 좋다	9	5.9
	건강에 아주 좋다	3	2.0
합계		152	100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건강에 조금 나쁘다’ (47.4%)와 ‘아주 나쁘다’ (24.3%)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잘 모르거나’ (20.4%), ‘건강에 좋다’ 고 인식하는(7.9%) 응답도 있어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영양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3]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리하거나 준비가 쉬워서	53	24.4
	시간이 없어 급하게 먹기 위해서	37	17.1
	맛있어서	76	35.0
	가격이 저렴해서	24	11.1
	보호자가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아서	5	2.3
	집에 먹을 다른 음식이 없어서	13	6.0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음	6	2.8
	기타	3	1.4
합계		217	100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맛있어서’ (35.0%)가 가장 많았고, ‘조리하거나 준비가 쉬워서’ (24.4%), ‘시간이 없어 급하게 먹기 위해서’ (17.1%)가 뒤를 이었다. 주된 이유가 맛과 편의성에 집중되어 있어, 인스턴트 음식이 간편한 식사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매우 건강하다	23	15.1
	건강한 편이다	56	36.8
	보통이다	49	32.2
	건강하지 않다	19	12.5
	매우 건강하지 않다	5	3.3
합계		152	100
N	평균	표준편차	
152	3.48	0.99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한 편이다’ (36.8%)와 ‘보통이다’ (32.2%)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매우 건강하다’ (15.1%)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대다수가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건강하지 않다’ (12.5%)와 ‘매우 건강하지 않다’ (3.3%)는 응답도 있어, 일부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 학업

[표 65] 순수 공부시간

		(단위 : 명, %)			
구분		평일		주말	
		빈도	%	빈도	%
순수 개인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1시간 미만	77	51.3	82	55.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51	34.0	35	23.5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12	8.0	17	11.4
	3시간 이상	10	6.7	15	10.1
합계		150	100	149	100

평일 하루 평균 순수 개인 공부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미만’ 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4.0%), ‘2시간 이상’ (14.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부시간이 ‘2시간 미만’ 인(85.3%)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말 하루 평균 순수 개인 공부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미만’ 이라는 응답이 55.0%로 가장 많았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3.5%), ‘2시간 이상’ (21.5%) 순으로 나타났다. 평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6] 본인의 학업 성취도 인식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본인의 학업 성취도 (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낮다	11	7.2
	낮은 편이다	38	25.0
	보통이다	55	36.2
	높은 편이다	40	26.3
	매우 높다	8	5.3
합계		152	100
N	평균	표준편차	
152	2.97	1.01	

본인의 학업 성취도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이다’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낮다’ (7.2%)와 ‘낮다’ (25.0%)를 합치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성적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5점 만점 중 2.97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다. 동일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더라도 학업에 대한 자기인식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이 높음에도 자기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긍정적 자기평가를 강화하는 정서적 지원이, 성적이 낮지만 자기인식이 높은 경우에는 학업 기초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표 67]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인식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전혀 느끼지 않는다	8	5.3
	거의 느끼지 않는다	25	16.4
	보통이다	42	27.6
	다소 느낀다	49	32.2
	매우 많이 느낀다	28	18.4
합계		152	100
N	평균	표준편차	
152	3.42	1.09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소 느낀다’가 3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많이 느낀다’ (18.4%)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통이다’ (27.6%) 응답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이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서 지원과 휴식·균형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68] 공부에 대한 자신감 인식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본인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혀 자신 없다	16	10.5
	자신 없는 편이다	49	32.2
	보통이다	48	31.6
	자신 있는 편이다	33	21.7
	매우 자신 있다	6	3.9
합계			
N	평균	표준편차	
152	2.76	1.04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 ‘전혀 자신 없다’ (10.5%)와 ‘자신 없는 편이다’ (32.2%)라고 응답했다. 평균은 2.76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앞선 문항에서 확인된 것처럼 아동·청소년에게 학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감이 낮을 경우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지원은 성적 향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바. 심리·정서

[표 69] 자기효능감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3	2.0	3.39	0.93
	아니다	21	13.8		
	보통이다	60	39.5		
	그렇다	49	32.2		
	매우 그렇다	19	12.5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	전혀 아니다	4	2.6	3.44	1.06
	아니다	32	21.1		
	보통이다	43	28.3		
	그렇다	39	25.7		
	매우 그렇다	34	22.4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4	2.6	3.72	1.00
	아니다	16	10.5		
	보통이다	37	24.3		
	그렇다	57	37.5		
	매우 그렇다	38	25.0		
자기효능감	N	평균		표준편차	
	152	3.52		1.00	

자기효능감 관련 문항의 전체 평균은 3.52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다’의 평균이 3.72점으로 가장 높아, 대체로 도전 후 재시도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와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이 있다’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보통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과제 해결과 새로운 시도 영역에서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표 70] 자아존중감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나를 좋아한다.	전혀 아니다	1	0.7	3.97	0.97
	아니다	13	8.6		
	보통이다	37	24.3		
	그렇다	40	26.3		
	매우 그렇다	61	40.1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3	2.0	3.91	0.93
	아니다	5	3.3		
	보통이다	44	29.1		
	그렇다	50	33.1		
	매우 그렇다	49	32.5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다.	전혀 아니다	2	1.3	3.72	0.97
	아니다	14	9.2		
	보통이다	46	30.3		
	그렇다	53	34.9		
	매우 그렇다	37	24.3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152	3.87		0.96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의 전체 평균은 3.8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특히 ‘나는 나를 좋아한다’의 평균이 가장 높아,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안정함이** 엿보였다.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긍정적 자기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71] 스트레스·우울·불안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전혀 아니다	15	9.9	3.08	1.06
	아니다	37	24.3		
	보통이다	42	27.6		
	그렇다	37	24.3		
	매우 그렇다	21	13.8		
나는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혀 아니다	22	14.5	2.94	1.03
	아니다	33	21.7		
	보통이다	46	30.3		
	그렇다	34	22.4		
	매우 그렇다	17	11.2		
나는 자주 슬프거나 의욕이 없다	전혀 아니다	40	26.3	2.46	0.99
	아니다	42	27.6		
	보통이다	38	25.0		
	그렇다	24	15.8		
	매우 그렇다	8	5.3		
나는 걱정이 많고 쉽게 불안해진다.	전혀 아니다	32	21.1	2.70	1.05
	아니다	38	25.0		
	보통이다	41	27.0		
	그렇다	26	17.1		
	매우 그렇다	15	9.9		
나는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울고 싶어진다.	전혀 아니다	64	42.1	2.13	0.95
	아니다	39	25.7		
	보통이다	24	15.8		
	그렇다	16	10.5		
	매우 그렇다	9	5.9		
스트레스·우울·불안	N	평균		표준편차	
	152	2.66		0.96	

스트레스·우울·불안 관련 문항의 전체 평균은 2.66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3.08점)가 가장 높고,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울고 싶다’ (2.13점)는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는 있으나, 우울감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일부 응답자는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사. 가족 및 친구 관계

[표 72] 가족관계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가족이 나에게도 잘해준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1	0.7	4.22 0.84
	아니다	3	2.0	
	보통이다	25	16.4	
	그렇다	55	36.2	
	매우 그렇다	68	44.7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2	1.3	4.26 0.82
	아니다	3	2.0	
	보통이다	21	13.8	
	그렇다	53	34.9	
	매우 그렇다	73	48.0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	전혀 아니다	68	45.0	4.01 0.88
	아니다	44	29.1	
	보통이다	19	12.6	
	그렇다	12	7.9	
	매우 그렇다	8	5.3	
가족관계	N	평균	표준편차	
	152	4.16	0.85	

가족관계 관련 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4.26점)와 ‘가족이 나에게 잘해준다’ (4.22점)는 응답이 특히 높아,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족의 존재는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긍정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73] 친구관계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전혀 아니다	2	1.3	4.28	0.87
	아니다	2	1.3		
	보통이다	23	15.2		
	그렇다	49	32.5		
	매우 그렇다	75	49.7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1	0.7	4.11	0.95
	아니다	8	5.3		
	보통이다	30	19.7		
	그렇다	47	30.9		
	매우 그렇다	66	43.4		
나는 친구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6	3.9	3.78	1.20
	아니다	23	15.1		
	보통이다	24	15.8		
	그렇다	44	28.9		
	매우 그렇다	55	36.2		
나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일이 많다.	전혀 아니다	5	3.3	4.11	1.0
	아니다	2	1.3		
	보통이다	32	21.1		
	그렇다	46	30.3		
	매우 그렇다	67	44.1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70	46.7	4.1	1.1
	아니다	46	30.7		
	보통이다	18	12.0		
	그렇다	11	7.3		
	매우 그렇다	5	3.3		
친구관계	N	평균		표준편차	
	150	4.1		0.77	

친구관계 관련 문항의 전체 평균은 4.1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이는 또래 관계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긍정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래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74]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나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어른이 있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2	1.3	4.15	0.92
	아니다	7	4.6		
	보통이다	29	19.1		
	그렇다	42	27.6		
	매우 그렇다	72	47.4		
합계		152	100		

나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어른이 있다고 느낀다의 전체 평균은 4.1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매우 그렇다’ (47.4%)와 ‘그렇다’ (27.6%)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아동·청소년이 주변 성인으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5] 고민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고민상담을 해주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109	35.4
	형제·자매	31	10.1
	학교·학원 선생님	23	7.5
	친구	103	33.4
	아동·청소년 기관 선생님	30	9.7
	기타	12	3.9
합계		308	100

고민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와 ‘친구’가 각 35.4%, 33.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형제·자매’ (10.1%), ‘아동·청소년 기관 선생님’ (9.7%), ‘학교·학원선생님’ (7.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과 또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76]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0명	10	6.6
	1~2명	34	22.4
	3~5명	65	42.8
	6명 이상	43	28.3
합계		152	100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 크기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3-5명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6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28.3%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71.1%가 3명 이상의 지지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야기할 상대가 전혀 없이 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6.6%에 이른다는 것이다. 복지관이 이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멘토)을 연결해 주거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개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아. 프로그램 욕구

[표 77] 하고 싶은 프로그램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아래 보기 중 하고 싶은 프로그램 1순위, 2순위는 무엇인가요?	예술활동(그림, 공예, 캘리그래피 등)	31	20.4	21	13.9
	스포츠활동(클라이밍, 탁구, 볼링 등)	52	34.2	31	20.5
	개별상담·집단상담	2	1.3	7	4.6
	학습멘토링	1	0.7	6	4.0
	봉사활동	2	1.3	8	5.3
	요리 및 제과제빵	37	24.3	28	18.5
	미디어활동(사진촬영, 영상 제작 등)	4	2.6	11	7.3
	독서 및 글쓰기 활동	2	1.3	3	2.0
	코딩 및 컴퓨터 활동	9	5.9	13	8.6
	진로체험활동	2	1.3	17	11.3
	기타	6	3.9	3	2.0
	노래, 춤 등	4	2.6	3	2.0
합계	152	100	151	100	

하고 싶은 프로그램 1순위 조사 결과, ‘스포츠활동’ (34.2%)이 가장 높았고, ‘요리 및 제과제빵’ (24.3%), ‘예술활동’ (20.4%)이 뒤를 이었다. 코딩 및 컴퓨터 활동(5.9%)과 진로체험활동(3.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신체활동과 창의적 체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 2순위 조사 결과, ‘스포츠활동’ (20.5%)이 가장 많았고, ‘요리 및 제과제빵’ (18.5%), ‘예술활동’ (13.9%)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1순위와 마찬가지로 신체활동과 창의적 체험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1순위 결과에 비해 ‘진로체험활동’ (11.3%)과 ‘코딩 및 컴퓨터 활동’ (8.6%)의 응답이 증가하여, 코딩 및 컴퓨터 활동과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8] 하고 싶은 프로그램 선택 이유

구분		(단위 : 명, %)			
		1순위 선택이유		2순위 선택이유	
		빈도	%	빈도	%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밌을 것 같아서	104	68.9	90	59.2
	친구랑 해보고 싶어서	21	13.9	22	14.5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16	10.6	31	20.4
	보호자·선생님의 권유로 해야할 것 같아서	0	0	0	0
	기타	10	6.6	9	5.9
합계		151	100	152	100

하고 싶은 프로그램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재밌을 것 같아서가’ (68.9%) 가장 높았고, ‘친구랑 해보고 싶어서’ (13.9%),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10.6%)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흥미와 즐거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외부 권유보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가 두드러졌다. 흥미 유발 요소를 중심에 두되,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 경험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은 프로그램 2순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재밌을 것 같아서’ 가(59.2%)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20.4%), ‘친구랑 해보고 싶어서’ (14.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마찬가지로 흥미 요인이 주요한 선택 기준이었으나, **필요성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흥미뿐 아니라 자기계발과 유용성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9]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단위 : 명, %)	
		빈도	%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안 맞아서	106	45.5
	거리가 멀어서	27	11.6
	돈이 들까봐 걱정돼서	11	4.7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35	15.0
	뭘 하는 건지 잘 몰라서	15	6.4
	보호자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7	3.0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20	8.6
	기타	12	5.2
합계		233	100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시간이 안 맞아서’ (45.5%)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15.0%), ‘거리가 멀어서’ (11.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학업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큰 것으로 보이며,**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80] 동네 내 아동·청소년 쉴 수 있는 공간의 유무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
우리 동네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7	4.6
	그렇지 않다	16	10.5
	보통이다	39	25.7
	그렇다	44	28.9
	매우 그렇다	46	30.3
합계		152	100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의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152	3.70	1.09

우리 동네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은 3.7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다. ‘그렇다’ (28.9%)와 ‘매우 그렇다’ (30.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체로 **지역 내 아동·청소년 공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미 아동·청소년 기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81] 원하는 아동·청소년 전용 휴식공간(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게임 / 오락(보드게임)	84	30.3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실	8	2.9
	공부할 수 있는 공간	37	13.4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92	33.2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	46	16.6
	기타	10	3.6
합계		277	100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에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지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과 ‘게임·오락(보드게임 등) 공간’ 이 각각 33.2%, 30.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 (16.6%)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 (13.4%)이 뒤를 이었으며, ‘상담실’ (2.9%)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여가와 휴식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자. 디지털 사용

[표 82]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

(단위 : 명, %)

구분	평일		주말		
	빈도	%	빈도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인가요?	1시간 미만	24	15.9	10	6.6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3	28.5	32	21.2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28	18.5	23	15.2
	3시간 이상	52	34.4	85	56.3
	사용하지 않음	4	2.6	1	0.7
합계	151	100	151	100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3시간 이상’ 이(34.4%)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8.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8.5%) 순으로 나타났다. ‘1시간 미만’ 은 1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평일 기준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약 2.8시간 내외로 추정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3시간 이상’ (56.3%)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1.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5.2%)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 평균 사용시간을 추정하면 약 3.5시간 수준으로 보인다. 평일보다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며, **주말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표 83]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복수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나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다.	49	13.0
	숙제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있다.	77	20.4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한 적이 있다.	27	7.2
	기분이 나빠진 적이 있다.	27	7.2
	좋은 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87	23.1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한 적이 있다.	57	15.1
	특별히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	36	9.5
	불안하거나 초조했던 적이 있다.	15	4.0
	기타	2	0.5
합계	377	100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좋은 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23.1%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한 적이 있다’ (15.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숙제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있다’ (20.4%),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다’ (13.0%), ‘기분이 나빠진 적이 있다’ (7.2%) 등 부정적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사용 시간과 방식에 따라 생활 리듬과 학습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4]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겪은 부정적 경험

		(단위 : 명, %)	
구분		빈도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나쁜 영향을 받은 경험의 개수	0개	49	32.5
	1개	37	24.5
	2개	38	25.2
	3개	19	12.6
	4개	6	4.0
	5개	2	1.3
합계		151	100

앞선 문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나쁜 영향을 받은 경험 개수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1개 이상’ 부정적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였으며, 이 중 26%는 ‘3개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용 습관을 조정하고 예방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차. 심화분석

[표 85] 학업 성취도 인식에 따른 학업 자신감 교차표

(단위 : 명)

구분		학업 자신감			합계
		자신 없다	보통이다	자신 있다	
학업 성취도 인식	낮음	39(79.6%)	9(18.4%)	1(2.0%)	49(100.0%)
	보통	21(38.2%)	27(49.1%)	7(12.7%)	55(100.0%)
	높음	5(10.4%)	12(25.0%)	31(64.6%)	48(100.0%)
합계		65(42.8%)	48(31.6%)	39(25.7%)	152(100.0%)

주:  $\chi^2 = 78.845$  (df=4), p=0.000

응답 분포를 고려해 학업 성취도와 학업 자신감을 세 수준(낮음·보통·높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 성취도 인식에 따라 학업 자신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chi^2 = 78.845$ , p = 0.000).

학업 성취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학업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높았으며, 반대로 학업 성취도를 낮게 인식한 아동·청소년은 학업 자신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동·청소년들이 학업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멘토링이 필요하다.

[표 86] 학업 성취도 인식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교차표

(단위 : 명)

구분		학업 스트레스			합계
		낮음	보통	높음	
학업 성취도 인식	낮음	10(20.4%)	7(14.3%)	32(65.3%)	49(100.0%)
	보통	6(10.9%)	21(38.2%)	28(50.9%)	55(100.0%)
	높음	17(35.4%)	17(35.4%)	14(29.2%)	48(100.0%)
합계		33(21.7%)	45(27.6%)	74(50.7%)	152(100.0%)

주:  $\chi^2 = 16.840$  (df=4), p=.002

응답 분포를 고려해 학업 성취도와 공부 스트레스 수준을 세 수준(낮음·보통·높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chi^2 = 16.840$ , p=.002).

학업 성취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았고, 성취도를 높게 인식한 아동·청소년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업 성취가 낮은 아동·청소년들도 학업과 관련된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공부법을 배워서 성취를 경험하고, 학습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87] 학년에 따른 하루 세끼 식사 유무 교차표

(단위 : 명)

구분		하루 세끼 식사 유무			합계
		거의 못 먹음	보통	충분히 먹음	
학년	초등학생	8(11.8%)	14(20.6%)	46(67.6%)	68(100.0%)
	중학생	8(16.7%)	16(33.3%)	24(50.0%)	48(100.0%)
	고등학생	14(38.9%)	9(25.0%)	13(36.1%)	36(100.0%)
합계		30(19.7%)	39(25.7%)	83(54.6%)	152(100.0%)

주:  $\chi^2 = 15.458$  (df=4),  $p = .004$

본 문항은 응답 분포를 고려해 학년을 세 범주로 묶고(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하루 세끼 식사 유무를 세 수준(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학년에 따라 끼니 섭취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15.458$ ,  $p = .004$ ).

초등학생은 세 끼를 충분히 먹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식사 빈도가 낮아지고 거의 못 먹는다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업 부담, 경제적·시간적 제약 등이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에서는 청소년 대상 식생활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88] 평일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 영향 교차표

(단위 : 명)

구분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 영향 개수						합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평일 스마트폰 이용시간	2시간 미만	34 (51.5%)	12 (18.2%)	12 (18.2%)	7 (10.6%)	1 (1.5%)	0 (0.0%)	66 (100.0%)
	2시간 이상	14 (17.5%)	23 (28.8%)	26 (32.5%)	11 (13.8%)	4 (5.0%)	2 (2.5%)	80 (100.0%)
합계		48 (32.9%)	35 (24.0%)	38 (26.0%)	18 (12.3%)	5 (3.4%)	2 (1.4%)	146 (100.0%)

주:  $\chi^2 = 20.483$  (df=5),  $p = .004$

본 문항은 응답 분포의 균형을 고려하여 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 두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의 개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20.483$ ,  $p = .001$ ).

평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부정적 경험으로는 학습 부진, 생활습관 불규칙, 가족 및 또래 간 갈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심화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과 디지털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89]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 영향 교차표

(단위 : 명)

구분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 영향 개수						합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주말 스마트폰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3 (51.6%)	13 (20.3%)	11 (17.2%)	6 (9.4%)	1 (1.6%)	0 (0.0%)	64 (100.0%)
	3시간 이상	16 (18.8%)	23 (27.1%)	27 (31.8%)	12 (14.1%)	5 (5.9%)	2 (2.4%)	85 (100.0%)
합계		49 (32.9%)	36 (24.2%)	38 (25.5%)	18 (12.1%)	6 (4.0%)	2 (1.3%)	149 (100.0%)

주:  $\chi^2 = 19.507$  (df=5), p=.002

본 문항은 응답 분포의 균형을 고려하여 3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두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평일과 다르게 범주화를 한 이유는 주말에는 응답자의 57%가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주말 스마트폰 이용 시간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겪은 부정적 경험의 개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19.507$ , p=.002).

주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부정적 경험이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주말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이외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90] 복지관 이용 경험에 따른 복지관 이미지(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현재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합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16 (12.9%)	8 (12.7%)	20 (26.3%)	44 (16.7%)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44 (35.5%)	21 (33.3%)	13 (17.1%)	78 (29.7%)
재밌고 신나는 곳이다	27 (21.8%)	12 (19.0%)	2 (2.6%)	41 (15.6%)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다	11 (8.9%)	7 (11.1%)	14 (18.4%)	32 (12.2%)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16 (12.9%)	13 (20.6%)	6 (7.9%)	35 (13.3%)
기타	4 (3.2%)	0 (0.0%)	0 (0.0%)	4 (1.5%)
모르겠다	6 (4.8%)	2 (3.2%)	21 (27.6%)	29 (11.0%)
합계	124 (100.0%)	63 (100.0%)	76 (100.0%)	263 (100.0%)

복지관 이용 경험에 따라 복지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복수응답)를 분석한 결과, **복지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복지관을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재 참여 중인 응답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다(35.5%)와 재밌고 신나는 곳이다(21.8%)라고 높게 응답하였으며, 이는 복지관이 아동·청소년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복지관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26.3%)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다(18.4%)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모르겠다(27.6%) 응답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복지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특정 대상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아동·청소년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특성에 맞춘 체험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월 어린이날 축제의 체험·놀이부스 참여 후 실제 복지관 이용으로 이어진 사례처럼, 아동·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복지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표 9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가족관계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스트레스
가족관계	1	0.346**	0.309**	0.355**	-0.367**
친구관계	0.346**	1	0.442**	0.242**	-0.323**
자기효능감	0.309**	0.442**	1	0.633**	-0.395**
자아존중감	0.355**	0.424**	0.633**	1	-0.454**
우울·불안·스트레스	-0.367**	-0.323**	-0.395**	-0.454**	1

주: 변수 쌍에 따라 표본 수는 148명에서 152명임. r값은 Pearson 상관계수를 의미함.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연관성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346$ ,  $p<.01$ )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 내 관계가 긍정적이고 원만할수록,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이고 잘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변화하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건강한 또래 관계 기술을 학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 $r=0.633$ ,  $p<.01$ )를 보였으며, 이는 두 긍정적

심리 요인이 서로를 강화하며 매우 밀접하게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기효능감이 가족관계( $r=0.309$ ,  $p<.01$ )보다 친구관계( $r=0.442$ ,  $p<.01$ )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나는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 내에서의 성공적인 과업 수행이나 긍정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심리적 어려움(우울·불안·스트레스)과의 연관성

관계 요인(친구·가족관계)과 긍정적인 심리 요인(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어려움(우울·불안·스트레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 값 범위:  $-0.323\sim-0.454$ ,  $p<.01$ )를 보였다. 관계와 긍정적인 심리 요인이 높을수록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 두 그룹의 요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함께 변화하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자아존중감( $r=-0.454$ )이 심리적 어려움과 가장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9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가족관계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스트레스
고민 상담 할 수 있는 사람의 수	0.214	0.397**	0.221**	0.180**	-0.100

주: 표본 수(N)는 149명에서 152명이다.  $r$  값은 Pearson 상관계수를 의미함.

\* $p<.05$  수준에서,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고민 상담 인원 수와의 연관성

고민 상담 인원 수는 가족관계( $r=0.214$ ,  $p<.05$ ), 친구관계( $r=0.397$ ,  $p<.01$ ), 자기효능감( $r=0.221$ ,  $p<.01$ ), 자아존중감( $r=0.180$ ,  $p<.05$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불안-스트레스( $r=-0.100$ ,  $p=.220$ )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관계,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구관계( $r=0.397$ )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또래 관계가 정서적 지지 기반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고민 상담 인원 수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의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상담 관계의 질이나 내적인 자원이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3] 학년과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보호자	56 (40.3%)	33 (34.7%)	20 (27.0%)	109(35.4%)
형제·자매	15 (10.8%)	7 (7.4%)	9 (12.2%)	31(10.1%)
학교·학원 선생님	11 (7.9%)	7 (7.4%)	5 (6.8%)	23(7.5%)
친구	40 (28.8%)	37 (38.9%)	26 (35.1%)	103(33.4%)
아동·청소년 기관 선생님	14 (10.1%)	8 (8.4%)	8 (10.8%)	30(9.7%)
기타	3 (2.2%)	3 (3.2%)	6 (8.1%)	12(3.9%)
합계	139 (100.0%)	95 (100.0%)	74 (100.0%)	308(100%)

학년에 따라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의 주된 고민 상담 대상은 보호자와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대상이 보호자(초 40.3% → 고 27.0%)에서 친구(초 28.8% → 고 35.1%)로 이동하는 뚜렷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또래 중심의 관계망이 견고해지는 고등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보호자는 2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지지체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변화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적응하고 지지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관계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구분

---

**1.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17명)**

-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
- 재미있는 활동 등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요구
- 축구 배우기 등 원하는 체육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안
- 베이킹 관련 활동 등 새로운 창작/체험 활동을 제안
-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희망
- 경주월드 놀러 가는 것 등 외부 체험 활동을 건의
- 할로윈 파티 등 즐길 거리가 있는 특별 행사를 요청

**2.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 (8명)**

- 프로그램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며 시간 연장을 요청
- 고등학생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대상 확대를 요구
- 드럼 설치해주세요!! 등 구체적인 장비 확충을 희망
- 청소년 부스를 만들어 주세요 등 전용 공간을 요청
- 간식 많이 주세요 라며 간식 지원에 대한 기대를 표현
- 쿠폰을 많이 주면 좋겠다며 참여 보상 강화를 희망

**3. 기타 의견 (12명)**

- 너무 재밌어요, 완벽합니다 등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감 표현
  -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셔서 감사하며 현 상태 유지를 희망
  - 엄마,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 공부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학습 관련 의견 제시
-

## 2. 결론 및 제언

### 가. 결과 요약

2025년 관악구 아동·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향후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아동·청소년 사업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하루는 학업과 미디어로 채워져 있으며, 정작 원하는 활동을 할 기회는 부족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실제 여가 시간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미디어 활동(40.4%)과 학원, 숙제와 같은 학업 활동(23.2%)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은 것은 스포츠, 요리와 같은 체험 활동으로, 실제 생활과 마음속 욕구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학업 부담을 가장 많이 꼽은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의 삶에는 건강한 습과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장 과정에서 또래 관계는 정서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민을 나누는 주된 대상이 보호자에서 친구로 뚜렷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고민을 나눌 친구가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여, 또래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자신감과 정서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했다. 이는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민을 터놓을 상대가 전혀 없다고(6.6%) 응답한 소수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기회이자 위협으로 공존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좋은 정보를 얻는 긍정적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학업 집중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 경험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수록 부정적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결과는, 디지털 기기 과사용이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하루 세 끼 식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20%가 결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결식 경향은 심화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거의 못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이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는 주요한 시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섯째, 친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에도, 보호자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핵심적인 지지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고민 상담 대상으로 친구와 함께 보호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등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보호자는 중요한 지지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긍정적인 또래 관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보호자 관계가 건강한 사회성 발달의 든든한 기반이 됨을 시사했다.

## 나. 아동·청소년사업 및 운영방안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청소년 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쉽고 균형이 있는 여가 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강한 여가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스포츠, 요리, 예술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단순 기능 교육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와 성취감 향상으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활동 없이도 편안하게 쉬고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써 기능하며, 아동·청소년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2)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강화

본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또래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아동·청소년 활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시 개인별 활동을 넘어 팀을 구성하여 협력하는 과업도 포함시키고, 모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복지관의 어떤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통합적 접근이 될 것이다.

더불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적 고립 상태의 아동·청소년을 세심하게 발굴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 3)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와 예방을 넘어 역량 강화 관점의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미디어 정보 판별법, 온라인 소통 기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4) 아동건강보장사업 지원 확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결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식사 지원을 넘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요리 교실, 영양 교육 등을 강화하고, 건강식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5) 보호자 지지체계 강화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삶 전반에 있어 핵심 지지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고민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다루는 보호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보호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보호자들이 겪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지역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2. 아동·청소년 욕구조사 설문지



## 2025년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 욕구조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시는 필요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고, 이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렴된 귀중한 의견들은 현재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따라, 통계 작성 이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된 모든 응답은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로 가공되어 활용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7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백옥선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4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연락처: 02-870-4400 / 02-870-4458 (김소연 과장)

[기관입력]

조사 담당자	조사일시	ID	코딩

## 복지관 인지정도

1.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이름만 알고 있다.
- ② 위치나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 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2.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주민센터 안내
- ② 이웃/친구/가족 추천
- ③ 복지관 홈페이지/소식지/홍보물
- ④ 지역 신문/방송/온라인 (SNS, 블로그 등)
- ⑤ 지역 행사(축제)/캠페인 참여 중
- ⑥ 우연히 지나가다가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⑧ 잘 모른다/들어본 적 없다

3.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현재 이용하고 있다.	3-1. 이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가 있어서 ② 복지관이 집/직장과 가까워서 ③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여서 ④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⑤ 건강 관리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해서 ⑥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해서 ⑦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곳이 필요해서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② 이용을 하다가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3-2. 이용을 중단했거나 이용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지관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서 ② 필요한 서비스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③ 복지관까지 가기 어려워서 (교통, 거리 등) ④ 이용료가 부담되어서 ⑤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운영 시간, 프로그램 시간 등) ⑥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⑦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③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을 한 적이 없다.	

4.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식사, 재가 서비스 등)
- ② 여가/문화/교육 지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
- ③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
- ④ 지역 문제 해결 (빈곤, 고립, 안전 등)
- ⑤ 복지 정보 및 연계 (필요한 서비스 안내)
- ⑥ 주민 참여 유도 (봉사 등 지역사회에 기여 기회 제공)
- ⑦ 취약계층 특별 지원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 ⑧ 주민 의견 반영 (복지 정책에 주민 의견 반영 노력)
- ⑨ 기타 (자유롭게 작성) → \_\_\_\_\_

---

## 복지욕구 \_ 건강 및 의료

---

5. 현재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 ②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 ③ 신체 활동의 어려움 (거동 불편, 만성 통증, 관절염 등)
- ④ 시력/청력 등 감각 기능 저하
- ⑤ 치과 관련 문제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⑦ 해당 없음

6.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번으로 이동)

7. (6번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병원비 부담
- ② 정보 부족 (어떤 병원 / 치료를 받을지 모름)
- ③ 병원 가기 어려움 (교통 불편 등)
- ④ 대기 시간이 김
- ⑤ 전문 의료 인력 부족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8. 만성 질환이 있거나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번으로 이동)

9. (8번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질병 관련 교육 (예: 당뇨 식단, 약 복용법 등)
- ② 운동 프로그램 (예: 건강 체조, 걷기 모임 등)
- ③ 식단 관리 지원 (예: 영양 상담, 저염식 제공 등)
- ④ 정서적 지지 (예: 우울감 상담, 환우 모임 등)
- ⑤ 의료비 지원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10. 정신 건강 관리(우울감, 스트레스 관리 등)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번으로 이동)

11. (10번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상담
- ② 심리 검사
- ③ 집단 프로그램 (예: 스트레스 해소 모임, 명상 등)
- ④ 약물 치료 연계
- 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

## 복지욕구 \_ 경제, 주거, 일자리

---

---

12. 현재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낮은 소득 또는 소득 불안정
- ② 주거비 (월세, 전세 대출 이자 등) 부담
- ③ 식비 등 생활비 부족
- ④ 자녀 교육비 부담
- ⑤ 의료비 / 간병비 부담
- ⑥ 빚 문제 (대출 등)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⑧ 해당 없음

13. 일자리와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
- ② 직업 훈련 및 교육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
- ③ 구직 기술 향상 지원 (이력서, 면접 준비 등)
- ④ 경력 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 ⑤ 창업 지원 (교육, 자금, 컨설팅 등)
- ⑥ 직업 관련 심리 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⑧ 해당 없음

14.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15. (14번 질문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주거비 부담 (월세, 전세금 등)
- ② 집이 낡고 오래됨 (곰팡이, 냉난방, 누수 등)
- ③ 집 공간이 좁음
- ④ 안전 문제 (방법, 화재, 층간 소음 등)
- 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16. 주거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지원
- ②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등)
- ③ 주거비 (월세, 전세 자금 대출 등) 지원 확대
- ④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단열 개선, 난방비 지원 등)
- ⑤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쪽방 등)을 위한 주거 지원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 복지욕구 \_ 사회관계 및 여가 / 문화

---

17. 최근 1개월 내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거의 매일 (매우 심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 ② 자주 (상당히 빈번하게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 ③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낌)
- ④ 거의 없음 (거의 느끼지 못함)
- ⑤ 전혀 없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함)

18.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간 부족
- ② 정보 부족 (모임이나 프로그램 정보)
- ③ 경제적 부담
- ④ 몸이 불편해서 (이동 어려움 등)
- ⑤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려움 (성격, 대인관계 문제 등)
- ⑥ 관심 있는 활동이 없음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⑧ 해당 없음

19.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비슷한 관심사 소모임 활동 지원 (취미, 학습 등)
- ②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③ 이웃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④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 ⑤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심리 상담 지원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0. 지난 1년 동안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충분히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족하다

21. 평소 어떤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운동 (걷기, 요가, 헬스, 수영 등)
- ② 취미 활동 (공예, 음악, 미술, 글쓰기, 악기 연주 등)
- ③ 여행
- ④ 독서
- ⑤ 영화/공연/전시 관람
- ⑥ 봉사 활동
- ⑦ 지역 축제/행사 참여
-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2.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4번으로 이동)

23. (22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간 부족
- ② 경제적 부담
- ③ 정보 부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름)
- ④ 프로그램 부족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 ⑤ 함께 할 사람 부족
- ⑥ 몸이 불편해서 (거동 불편, 건강 문제 등)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4. 어떤 여가/문화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저렴하거나 무료 문화 프로그램 (공연, 전시, 영화 등)
- ② 다양한 취미 활동 강좌 (악기, 미술, 요리, 운동 등)
- ③ 지역 문화/체육 시설 이용 개선 (교통 편의, 정보 제공 등)
- ④ 가족 단위 참여 여가 프로그램
- ⑤ 어르신/청소년 등 세대 간 교류 여가 활동
- ⑥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 (스마트폰, SNS 등)
- ⑦ 기타 (직접작성) → \_\_\_\_\_

---

## 복지욕구 \_ 돌봄 및 교육

---

25. 현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계십니까?

① 예 → 어떤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학령기 자녀 신체장애 정신장애 거동불편 노인 치매 노인 기타

② 아니오 (28번으로 이동)

26. (25번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피로함
- ②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 ③ 경제적 부담 (돌봄 비용 등)
- ④ 돌봄 관련 정보 부족
- ⑤ 돌봐줄 사람 부족
- ⑥ 사회생활 제약 (외출 어려움, 경력 단절 등)
-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7. 어떤 종류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돌봄 인력 지원 (아이 돌보미, 요양 보호사 등)
- ②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황 시)
- ③ 야간/휴일 돌봄 서비스
- ④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지원 제도, 서비스 기관 등)
- ⑤ 돌봄 교육 (돌봄 기술, 대처 방법 등)
- ⑥ 돌봄으로 인한 심리 상담
- ⑦ 경제적 지원 (돌봄 수당 등)
-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8.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녀 교육비 부담
- ② 성인 학습 기회 부족 (문해 교육, 자격증 취득 등)
- ③ 정보화 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등) 부족
- ④ 특정 교육 프로그램 이용 어려움 (거리, 시간 등)
- 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⑥ 해당 없음

29.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부모 교육, 은퇴 교육, 노년층 교육 등)
- 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 ③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 교육
- ④ 문화 예술 교육
- ⑤ 평생 학습 프로그램 (취미, 교양 등)
-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

---

3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르는 편이다
- ⑤ 전혀 모른다

31. 우리 동네(거주하고 계신 동)에 대해 만족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편리한 교통
- ② 깨끗한 환경
- ③ 안전한 치안
- ④ 다양한 편의시설 (마트, 병원, 은행 등)
- ⑤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 ⑥ 좋은 이웃 관계
- ⑦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 ⑧ 교육 환경 (학교, 학원 등)
- ⑨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⑩ 만족하는 점이 없다

32. 거주하고 계신 동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중교통 불편
- ② 주차 공간 부족
- ③ 쓰레기 문제/환경 미흡
- ④ 부족한 편의시설
- ⑤ 공원/녹지 등 휴식 공간 부족
- ⑥ 이웃 간 교류 부족
- ⑦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 ⑧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⑨ 교육 환경 미흡
- ⑩ 낡고 오래된 주거 환경
- ⑪ 안전 문제 (범죄, 사고 등)
- ⑫ 기타 (직접 작성) → \_\_\_\_\_

3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5번으로 이동)

34. (33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으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환경 개선 (쓰레기, 미세먼지 등)
- ② 주거 환경 개선 (낡은 주택, 재개발 등)
- ③ 안전 문제 (방법, 교통 안전 등)
- ④ 지역 주민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 ⑤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 (고독사, 치매, 정서적 지원 등)
- ⑥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 ⑦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 ⑧ 교육 환경 개선
- ⑨ 기타 (직접 작성) → \_\_\_\_\_

35.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출생년도 : _____년생 (예: 1960)
거주지역	① 행운동 ② 청림동 ③ 성현동 ④ 남현동 ⑤ 기타 지역 ( ) (예: **구, **동)
관악구 거주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이하                      ③ 4년~6년 이하 ④ 7년~9년 이하                      ⑤ 10년~14년 이하                      ⑥ 15년 이상
주거형태	① 아파트 ② 다세대(빌라)주택 ③ 단독주택 ④ 고시원, 여인숙 ⑤ 기타 ( )
주거현황	① 자가 ② 전세(장기전세 포함) ③ 월세 ④ 공공임대(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⑤ 영구임대 ⑥ 기타(고시원, 친척집, 노숙 등, _____)
가족구성	① 1인가구 ② 부부(자녀없음) ③ 부부+자녀 ④ 한부모+자녀 ⑤ (한)조부모+부모+자녀 ⑥ 조부(모)+손자녀 ⑦ 기타( )
동거가족수	본인 포함 동거가족 수 : _____명
보호구분	① 해당없음 ② 기초생활 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조건부 수급) ③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한부모) ④ 기타 (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욕구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휴대폰 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모바일 쿠폰 발송을 위함.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모바일 쿠폰 발송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파기
4.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모바일 쿠폰 발송이 어려울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핸드폰 번호 : 010 - \_\_\_\_\_ - \_\_\_\_\_)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쿠폰 발송이 불가합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년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육구조사

안녕하세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은 아동·청소년의 학습, 여가·문화 활동, 진로·직업 탐색, 개별상담,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를 듣고 더 즐겁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참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문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백옥선**

**★성실히 육구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4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문의 : 02-870-4470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팀은 1:1 학습멘토링, 요리교실, 제과제빵, 클라이밍, 볼링·탁구, 직업체험, 여행 등 다양한 여가·문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문의: 02-870-4470]

[기관 입력용]

ID	조사자	조사일시

---

## 01. 여가·놀이

---

다음은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선택하여 1순위와 2순위를 번호로 적어 주세요.

- ① 스마트폰, TV 시청    ② 독서하기    ③ 게임(PC, 스마트폰,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 ④ 숙제    ⑤ 동아리 활동    ⑥ 학교 방과후 참여하기    ⑦ 학원이나 과외    ⑧ 종교활동
- ⑨ 집안일 돕기    ⑩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아동·청소년 시설 이용
- ⑪ 친구랑 놀기    ⑫ 신체활동 또는 운동하기    ⑬ 아르바이트    ⑭ 낮잠
- ⑮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1. 평일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1순위: (                    ) 2순위: (                    )

### 2. 주말에 주로 하는 활동은?

1순위: (                    ) 2순위: (                    )

### 3. 방학 중에 주로 하는 활동은?

1순위: (                    ) 2순위: (                    )

### 4. 당신은 최근 1년 간 놀이·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4번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5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 5. 놀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순위: (                    ) 2순위: (                    )

- ①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② 친구가 없어서  
③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④ 집안일을 해야해서    ⑤ 용돈이 부족해서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뒷장에 계속됩니다 ※

---

---

## 02. 식생활

---

---

6. 평소에 하루 세 끼를 모두 챙겨 먹는 편인가요?

- ① 거의 챙겨 먹지 못한다 ② 자주 못 챙겨 먹는다 ③ 가끔 못 먹는다  
④ 자주 챙겨 먹는다 ⑤ 항상 챙겨 먹는다.

⇒ 6번에서 ★거의 챙겨 먹지 못한다 / 자주 못 챙겨 먹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만 6-1번 문항에  
응답해주세요

6-1.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음식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②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가 차려주지 않아서  
③ 스스로 요리를 할 줄 몰라서 ④ 먹지 않는게 익숙해져서 ⑤ 기타 (직접 작성) →
- 

7.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걱정한 적이 있나요?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⑤ 매우 자주 있다

8. 평소에 식사를 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 ①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가 차려주심 ② 직접 조리 ③ 인스턴트 식품  
④ 배달 음식 ⑤ 밖에서 먹음(외식) ⑥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먹음  
⑦ 기타 (직접 작성) → \_\_\_\_\_

9. 인스턴트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 ① 건강에 아주 나쁘다 ② 건강에 조금 나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건강에 조금 좋다 ⑤ 건강에 아주 좋다

10.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조리하거나 준비하기 쉬워서 ② 시간이 없어 급하게 먹기 위해서 ③ 맛있어서  
④ 가격이 저렴해서 ⑤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가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아서  
⑥ 집에 먹을 다른 음식이 없어서 ⑦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음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11.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 03. 학업

12. 학교 수업과 학원·과외 시간을 뺀 ‘순수 개인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되나요?

구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평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본인의 학업 성취도(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14.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거의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느낀다 ⑤ 매우 많이 느낀다

15. 본인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 ① 전혀 자신 없다 ② 자신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자신 있다

### 04. 심리·정서

16. 다음 문항은 자신이 느끼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수준 등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가장 알맞은 정도에 체크(V)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					
2)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					
3) 실패해도 다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나를 좋아한다.					
5)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괜찮은 사람이다.					
7) 나는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별일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9)	나는 자주 슬프거나 의욕이 없다.					
10)	나는 걱정이 많고 쉽게 불안해진다.					
11)	나는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울고 싶어진다.					

※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CES-D 청소년용 우울척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2023) 기반 재구성

## 05. 가족 및 친구 관계

17. 다음 문항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가장 알맞은 정도에 체크(V)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이 나에게도 잘해준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					
4)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5)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고 느낀다.					
6)	나는 친구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					
7)	나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일이 많다.					
8)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9)	나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어른이 있다고 느낀다.					

\*KIDSCREEN-27,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2023) 기반 재구성

18.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    명)

18-1.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② 형제·자매 ③ 학교·학원 선생님 ④ 친구  
⑤ 아동·청소년 기관(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선생님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 06. 프로그램 욕구

---

19. 아래 보기를 본 후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1순위와 2순위로 골라주세요

- |   |
|---|
| ① 예술활동(그림, 공예, 캘리그래피 등) ② 스포츠활동(클라이밍, 탁구, 볼링 등)<br>③ 개별상담·집단상담 ④ 학습멘토링 ⑤ 봉사활동 ⑥ 요리 및 제과제빵<br>⑦ 미디어활동(사진촬영, 영상 제작 등) ⑧ 독서 및 글쓰기 활동, ⑨ 코딩 및 컴퓨터 활동<br>⑩ 진로체험활동 ⑪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

1순위 (            ), 2순위 (            )

20. 1순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재밌을 것 같아서  
② 친구랑 같이 해보고 싶어서  
③ 나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④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선생님의 권유로 해야할 것 같아서  
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1. 2순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재밌을 것 같아서  
② 친구랑 같이 해보고 싶어서  
③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④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선생님의 권유로 해야할 것 같아서  
⑤ 기타(직접 작성) → \_\_\_\_\_

22.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시간이 안 맞아서  
② 거리가 멀어서  
③ 돈이 들까봐 걱정돼서  
④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⑤ 뭘 하는 건지 잘 몰라서  
⑥ 보호자(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등)가 허락해주지 않아서  
⑦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⑧ 기타 (직접 작성) → \_\_\_\_\_

23. 우리 동네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게임/오락(보드게임) ②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실 ③ 공부할 수 있는 공간  
④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⑤ 운동시설이 있는 공간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07. 디지털 사용

25. 평일과 주말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인가요?

해당되는 칸에 V표(V) 해주세요

구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⑤ 사용하지 않음
평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나요?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있다.  
 숙제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한 적이 있다.  
 기분이 나빠진 적이 있다.  
 좋은 정보를 알게 된 적이 있다.  
 친구들과 더 잘 소통한 적이 있다.  
 특별히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했던 적이 있다.  
 기타 (직접 작성) → \_\_\_\_\_

## 08. 복지관 이용경험 및 인식

27. 지금까지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p>① 현재 참여하고 있다.</p>	<p>28.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를 별(★)로 색칠해 주세요          ‘★(1개) = 전혀 그렇지 않다, ★(5개) = 아주 그렇다’</p> <p>① 복지관에 오면 신나고 재미있어요 ☆☆☆☆☆          ② 집(학교)에서 가까워서 오기 편해요 ☆☆☆☆☆          ③ 선생님이 친절하고 잘 도와주세요 ☆☆☆☆☆          ④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          ⑤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          ⑥ 공부나 숙제를 도와줘서 도움이 돼요 ☆☆☆☆☆          ⑦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          ⑧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          ⑨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      점)</p>
<p>② 참여하다가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p> <p>③ 현재까지 한 번도 참여를 한 적이 없다.</p>	<p>29.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p> <p>①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② 갈 수 있는 시간이 딱히 없어서          ③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④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곳 같아서          ⑤ 집과 멀어서          ⑥ 기타 (직접 작성) → _____</p>

30. 당신은 복지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중복 응답 가능)

- 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② 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곳이다.  
 ③ 재밌고 신나는 곳이다.    ④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가는 곳이다.  
 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⑥ 모르겠다.    ⑦ 기타 (직접 작성) →



## 2025년 지역주민 욕구조사 보고서

- 발행인: 백옥선
- 편집인: 김소연, 용현중
- 발행처: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발행일: 2025년 12월



